

조응어 해석을 위한 역동적 모델

정소우*†

성신여자대학교

So-Woo Chung. 2008. A Dynamic Approach to Anaphoric Resolution. *Language and Information* 12.1, 1–26. This paper proposes a dynamic approach to anaphoric resolution in conjunction phrases, in terms of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Unlike Kamp, van Genabith, and Reyle (forthcoming)'s analysis, it proposes two different types of 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s for conjunction phrases; one for coordinate phrases such as *and* conjunction phrases and the other one for subordination conjunction phrases such as *when* subordination phrases. Following Chung (1992), Chung (2004), every element is processed in the order of occurrence and conjunction operators in a non-sentence-initial position cause the ongoing DR to split in two with the same index. DRS conditions and *accessibility* are accordingly modified so that DRs for conjunction clauses can be accessible from DRs for main claus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Key words: 담화표상 (discourse representation), 접속사 (conjunctions), 등위접속 (coordinating conjunction), 종속접속 (subordinating conjunction), 접근가능성 (accessibility), 조응관계 (anaphoric relations), 비동일지시규칙 (non-identity rule)

1. 들어가기

이 논문은 Kamp, van Genabith, and Reyle (forthcoming) (이하 KGR로 약함)의 담화표상이론에서 등위접속사 구문 혹은 *when* 절과 같은 종속절을 내포하는 복합문에 나타나는 동일지시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절에서는 KGR에서 제안하는 접속사 구문 분석의 방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3절에서는 KGR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hung (1992)과 정소우 (2004)의 선형분석을 토대로 접속사 구문을 분석하

*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swchung@sungshin.ac.kr

† 이 논문은 200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도움말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도록 한다. 4절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의 의의를 정리하고, 추후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2. KGR의 접속사 구문 분석과 그 문제점

여기서는 KGR에 제시된 등위접속사 구문과 종속접속사 구문의 분석 방향을 살펴보고, 그 방향에 내재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KGR의 등위접속사 구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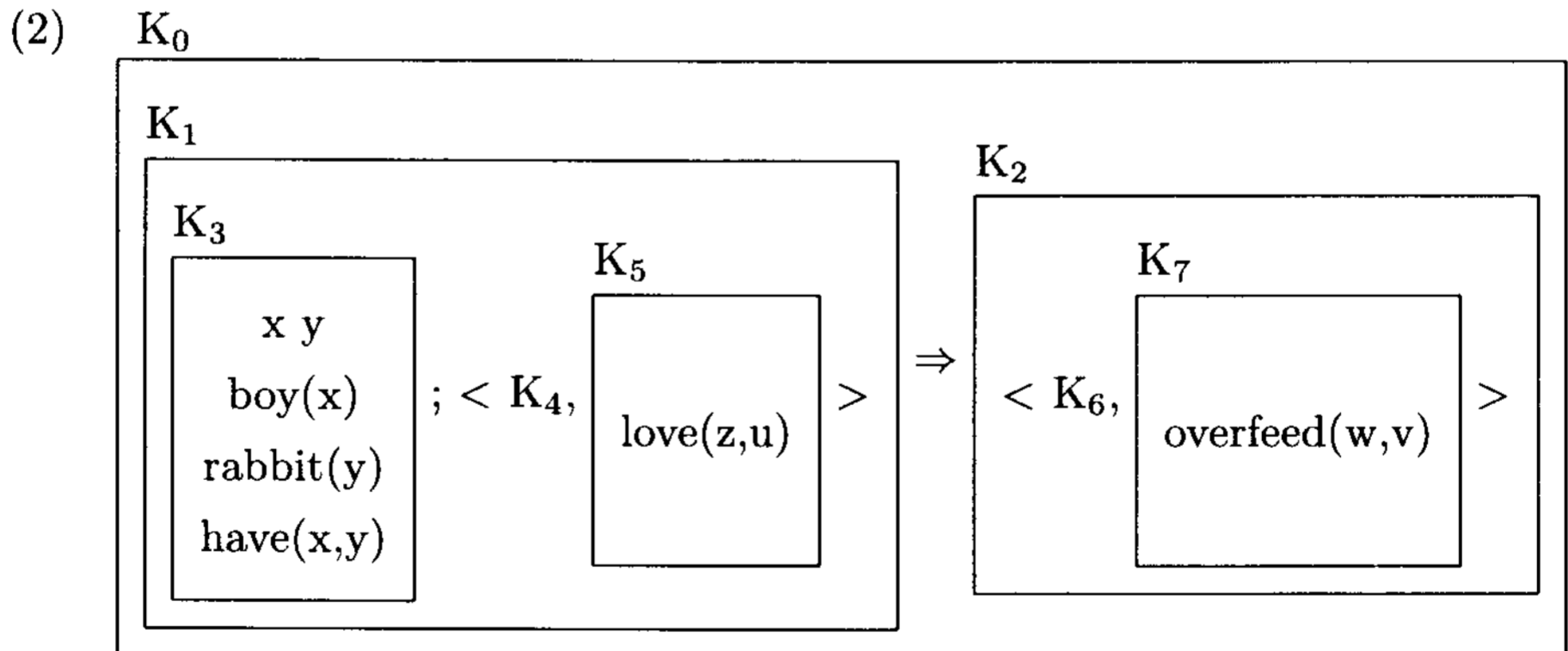
KGR의 담화표상이론에서 두 명사간의 조응관계의 적합성 및 부적합성은 대체로 담화지시체가 속한 담화표상간의 구조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대명사에 의해 설정되는 전제의 해소 또한 대명사의 선행사에 의해 도입되는 담화지시체와 대명사의 담화지시체가 속하는 담화표상간의 구조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명사간의 조응관계와 전제 해소의 과정을 아래 예문 (1)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 If a boy₁ has a rabbit₂ and he₁ loves it₂, then he₁ overfeeds it₂.

나. *If he₁ loves it₂ and a boy₁ has a rabbit₂, then he₁ overfeeds it₂.¹

먼저, (1가) 담화는 아래 (2가)의 중간 담화표상구조를 거쳐, (2나)의 담화표상구조로 표현되게 된다.



¹ 이 예문은 Kamp, van Genabith, and Reyle (forthcoming, 153)의 아래 예문 중 주어 a friend of mine을 a boy로 대체한 것이다.

- (i) If a friend of mine₁ has a rabbit₂ and he₁ loves it₂, then he₁ overfeeds it₂.
- (ii) *If he₁ loves it₂ and a friend of mine₁ has a rabbit₂, then he₁ overfeeds it₂.

여기서 K_4 와 K_6 는 각각 다음과 같다.

$$K_4 = \left\{ \begin{array}{|c|} \hline \underline{z} \\ \hline \text{male}(z) \\ \text{pers}(z) \\ \hline \end{array} \right\}, \begin{array}{|c|} \hline \underline{u} \\ \hline \text{non-pers}(u) \\ \hline \end{array} \left. \right\} \quad K_6 = \left\{ \begin{array}{|c|} \hline \underline{w} \\ \hline \text{male}(w) \\ \text{pers}(w) \\ \hline \end{array} \right\}, \begin{array}{|c|} \hline \underline{v} \\ \hline \text{non-pers}(v) \\ \hline \end{array} \left. \right\}$$

위 담화표상구조에서 ‘;’는 KGR이 Groenendijk and Stokhof (1991) 등의 동적 의미론을 따라 사용한 등위접속사 *and*의 의미를 나타내는 운용자이다. 각괄호 ‘< >’는 그 괄호 속에 있는 담화표상들이 순서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즉, < K_4 , K_5 >는 담화표상 K_4 가 담화표상 K_5 보다 선행한다는 뜻으로,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담화표상 K_4 에 있는 담화조건들은 담화표상 K_5 에 있는 담화지시체나 조건으로부터 접근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 물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K_4 나 K_6 과 같이 중괄호 안에 있는 담화표상은 전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의 K_4 는 대명사 *he*와 *her*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제에 해당한다. 즉 담화 도중 대명사 *he*를 들은 청자는 화자가 담화 세계에 한 남자가 있음을 전제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³ ‘ z ’와 같이 전제 내용을 담은 담화표상에 도입된 담화지시체에 사용된 밑줄은 해당 언어표현이 조응어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그 선행사를 문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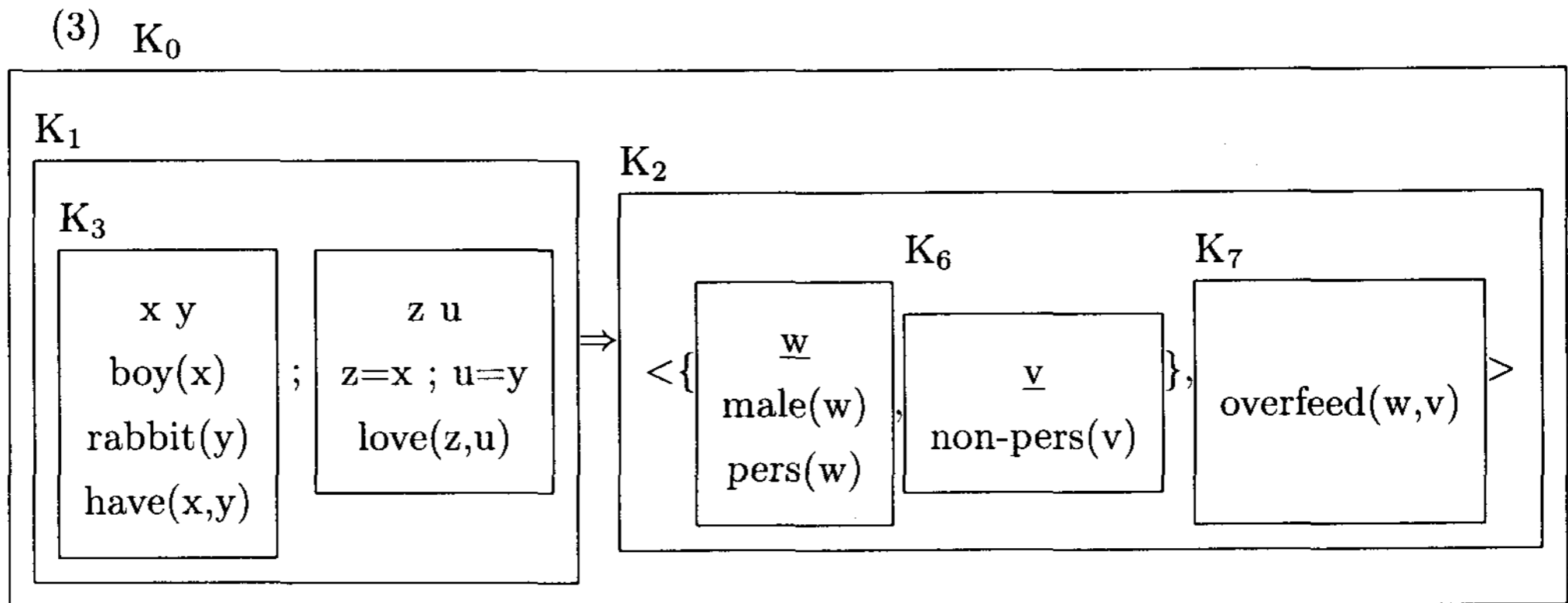
이제 중간 담화표상구조 (2)로 다시 돌아가서 명사간의 조응관계 설정과정을 살펴 보도록 하자. (1)에 설정된 명사들의 지표 기법에 따라 조건절의 대명사 *he*와 *her*가 각각 *a boy*와 *a rabbit*를 가리킨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2)에 설정된 전제 K_4 의 z 와 u 는 각각 *a boy*와 *a rabbit*에 의해 K_1 에 도입된 x 와 y 가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z=x$ 와 $u=y$ 라는 담화조건으로 표현된다. 이와 동시에 전제를 나타내던 담화표상 K_4 와 담화표상 K_5 와 합치되게 된다. 이 결과 도출되는 담화표상 구조는 아래와 같다.

²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담화표상 K_4 의 실제구조는 전체 담화표상구조 밖에 따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담화표상 K_4 가 그 형식이나 의미 측면에서 전체 담화표상구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GR이 사용한 표기 방법일 뿐이다. 예로써, (2)에 나타난 두 개의 각괄호 부분 중 하나인 아래 (i)는 실제로 (ii)와 같은 것이다.

$$(i) \quad \langle K_4, \begin{array}{|c|} \hline \text{love}(z,u) \\ \hline \end{array} \rangle = (ii) \quad \langle \left\{ \begin{array}{|c|} \hline \underline{z} \\ \hline \text{male}(z) \\ \text{pers}(z) \\ \hline \end{array} \right\}, \begin{array}{|c|} \hline \underline{u} \\ \hline \text{non-pers}(u) \\ \hline \end{array} \right\}, \begin{array}{|c|} \hline \text{love}(z,u) \\ \hline \end{array} \r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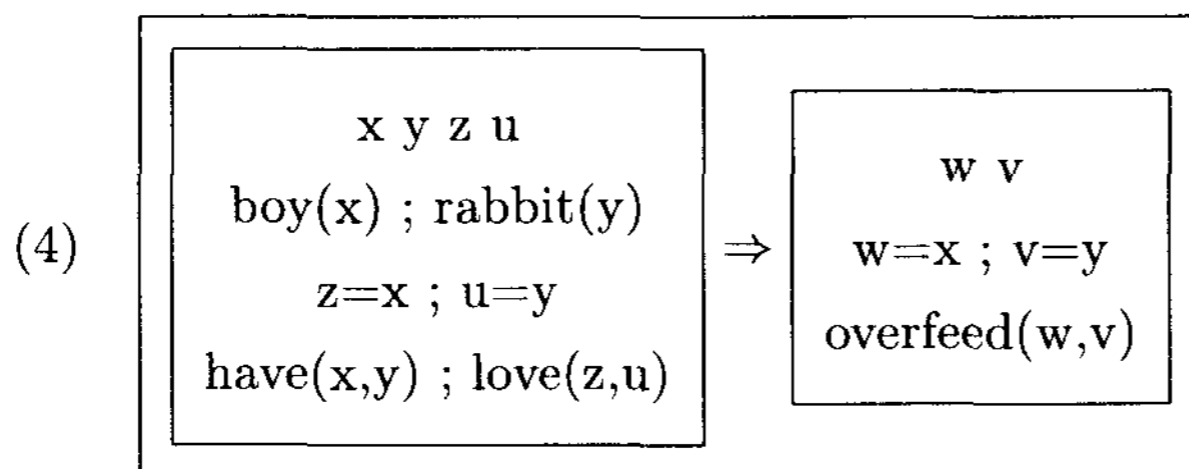
이 논문에서도 지면 공간상 필요한 곳에서는 이 표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³ 이 전제 부분을 위한 담화표상 구축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van der Sandt (1992)를 참조할 수 있다.



이제 위 (3)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조건문 결과절의 내용을 분석하는 담화표상 K_2 에 설정된 전제 부분(K_6)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화지시체 w, v 와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선행사를 전체 담화표상구조에서 찾아야 하나, 그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3)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조건문의 선행절에 해당하는 부분의 담화표상구조에 명시된 담화지시체와 담화조건 중 어느 것도 구조상 조건문의 결과절에 있는 담화지시체와 담화조건으로부터 접근가능하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KGR은 문맥을 통하여 전제가 다 만족된 등위 접속사 구문의 담화표상구조를 하나의 담화표상으로 합병하는 규칙(Lifting of Presupposition-free ; - conditions)을 설정한다.⁴ 이 규칙에 따라, 아래의 담화표상구조에 보듯이, 선행절 담화표상구조가 하나로 병합되며, 이에 따라 결과절의 전제 및 담화지시체 조응 해석이 처리될 수 있게 된다.



반면, (1나)의 중간 단계의 담화표상구조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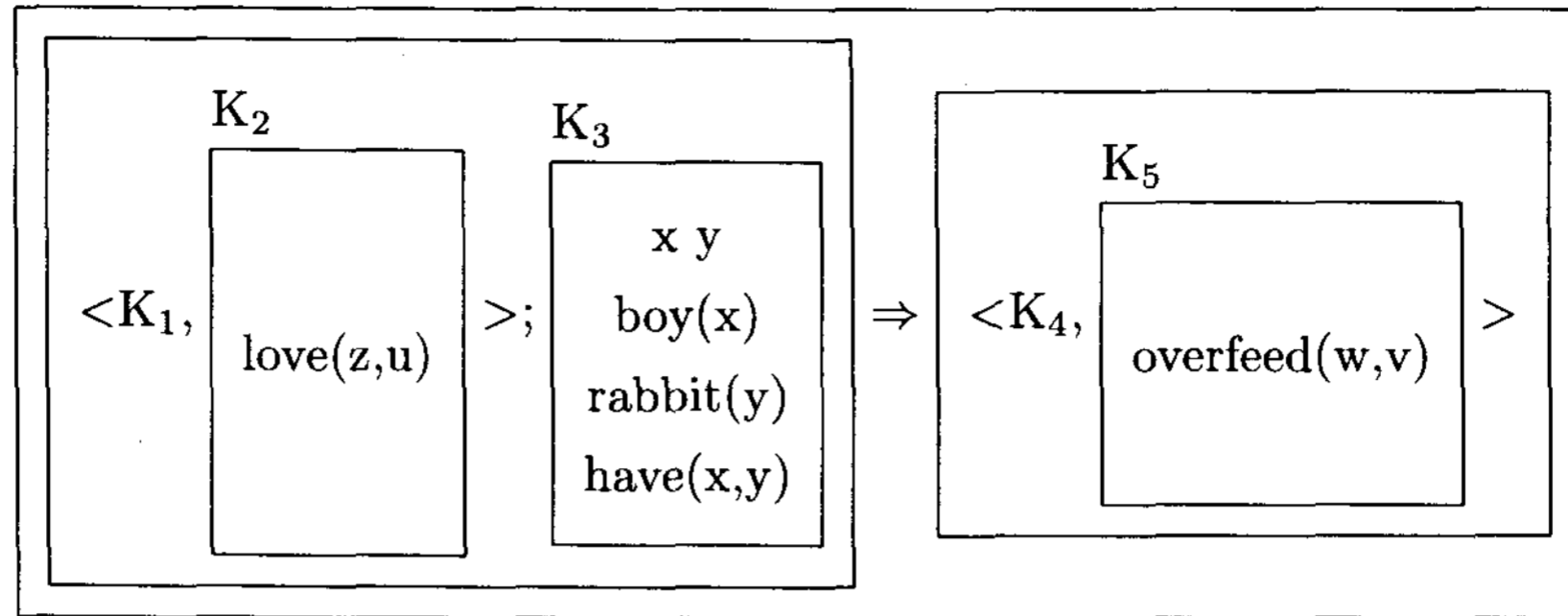
⁴ KGR이 제시하는 합병규칙은 다음과 같다.

Lifting of presupposition-free ; -cond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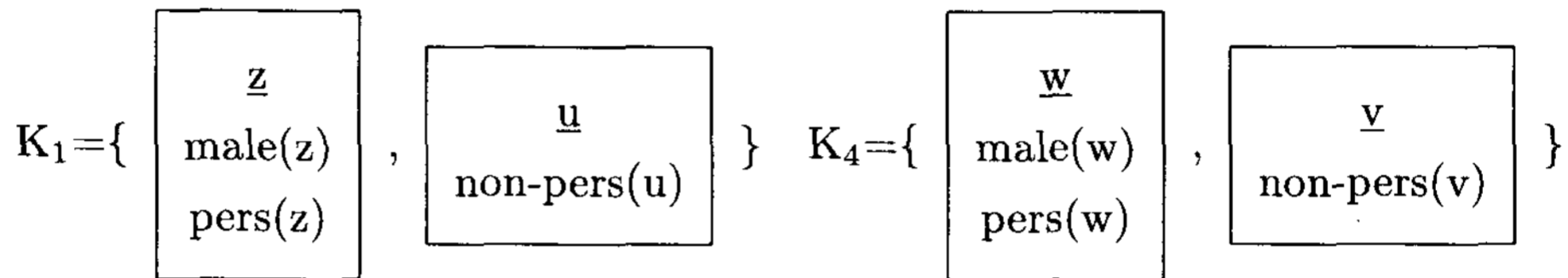
Suppose that a preliminary representation K has a component K' , that K' contains a condition of the form $K_1;K_2''$ and that this condition is a DRS condition — that is, both K_1 and K_2 are free of presuppositions. Then K' may be replaced in K by the merge of K' , K_1 and K_2 . (KGR p.154)

즉, 전제가 다 해소된 담화표상의 경우, 그 담화표상을 직접 지배하는 담화표상으로 흡수된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전제가 다 해소된 담화표상은 그 안에 있던 모든 담화조건을 그 담화표상을 직접 내포하고 있는 상위 담화표상으로 상승시킨 후, 그 담화표상은 소거된다는 것이다.

(5) K_0



여기서 K_1 과 K_4 는 각각 다음과 같다.



KGR은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전제 K_1 은 해소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5)의 담화표상구조내에 K_1 에 설정된 z 나 u 로부터 접근가능한 위치에 있는 담화지시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또 다른 전제 부분인 K_4 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위 (5)의 담화표상구조는 완성된 상태의 담화표상구조로 진전되지 못하고 부적합한 담화표상구조로 판정되게 된다. 이는 (1나)의 담화가 청자에게 대명사 he와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담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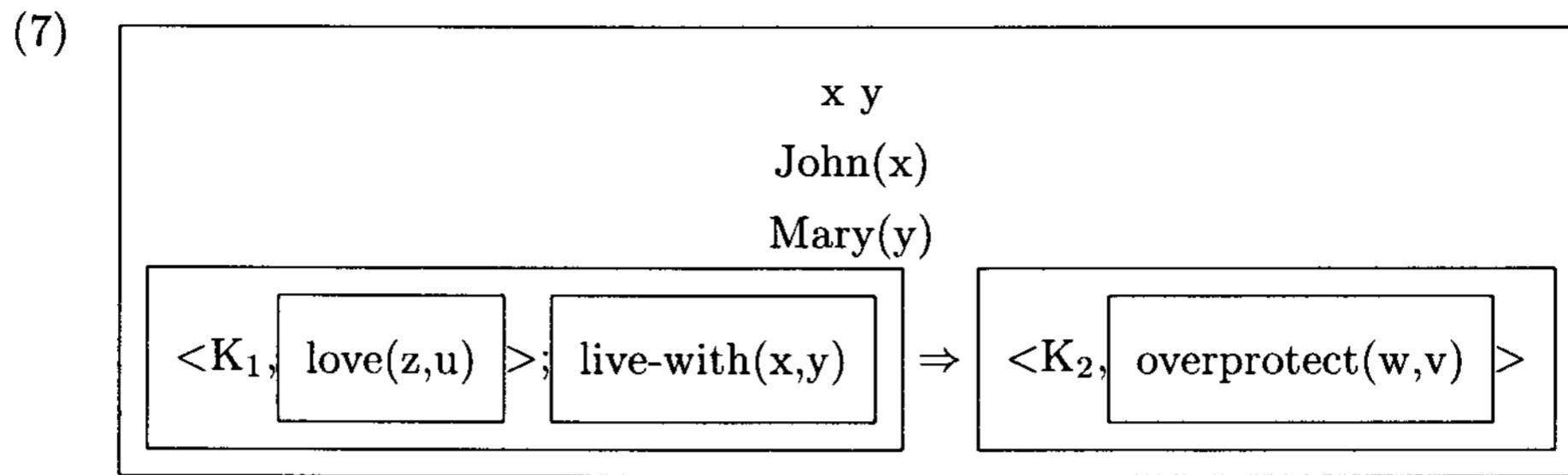
2.2 KGR의 등위접속사 구문 분석의 문제점

전항에서 논의된 KGR의 등위접속사 구문 분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KGR의 분석은 고유명사가 사용되는 아래 (6나)와 같은 문장의 비문법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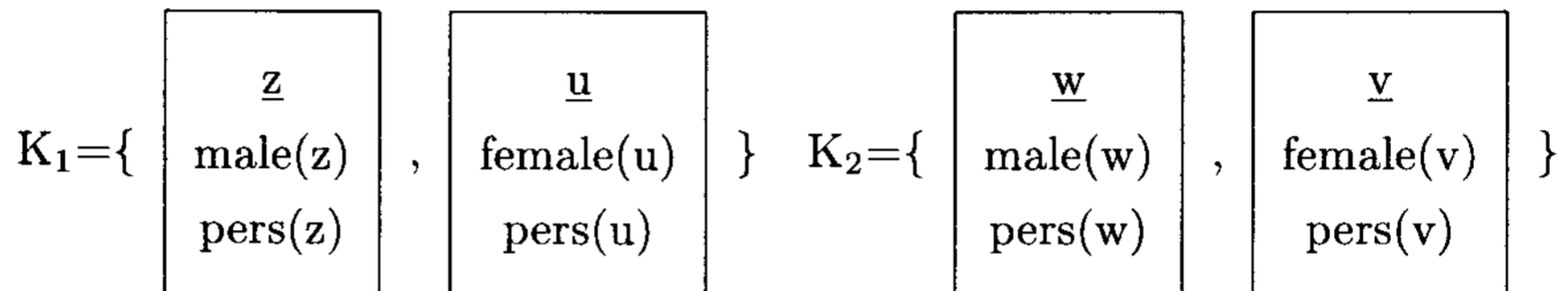
(6) 가. If John₁ loves Mary₂ and he₁ lives with her₂, then he₁ overprotects her₂.

나. *If he₁ loves her₂ and John₁ lives with Mary₂, then he₁ overprotects her₂.

(6나)의 중간 담화표상구조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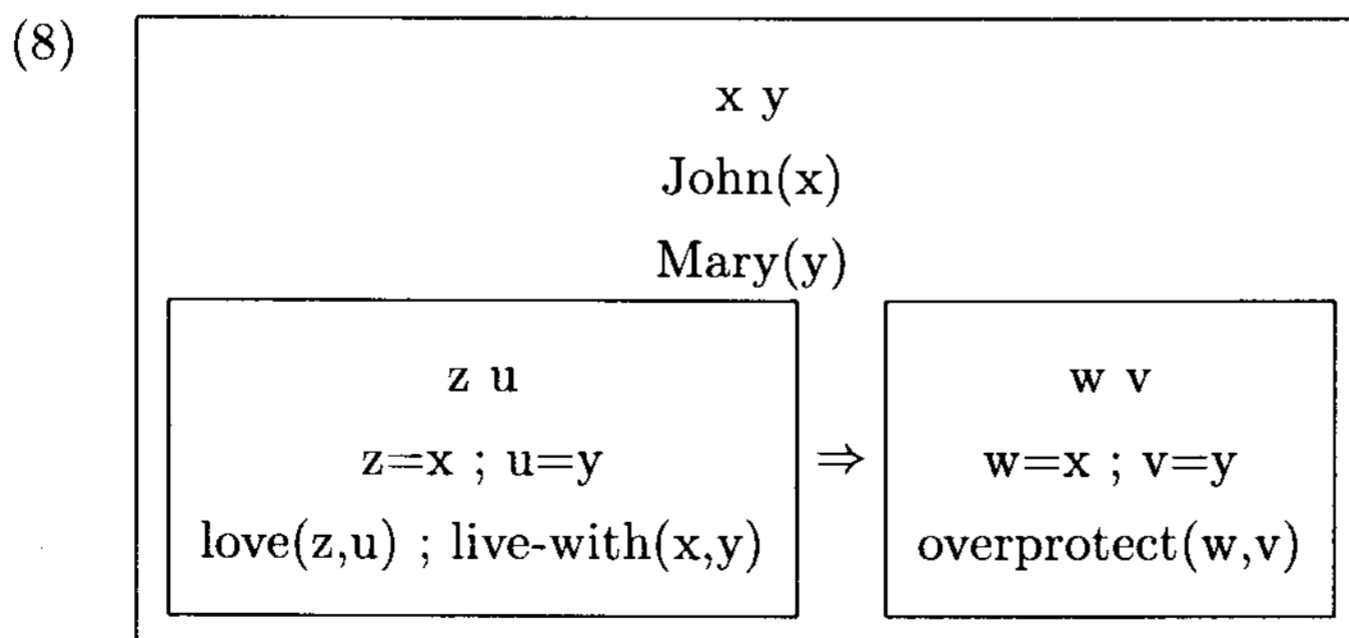


여기서 K_1 와 K_2 는 각각 다음과 같다.



위 담화표상구조에서 유의할 점은 고유명사에 대한 분석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생략된 부분이란 고유명사 *John* 과 *Mary* 역시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각각 지시하는 개체가 담화세계에 존재한다는 전제를 발생시키며, 그 전제는 담화 문맥을 통해서 해소되며, 이 때 고유명사가 소개한 담화지시체는 주 담화표상으로 상승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고유명사와 관련된 전제와 상승 과정은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유명사에 의해 도입되는 담화지시체는 전제 해소 과정을 거친 후 모두 주담화표상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대명사에 의해 발생하는 전제 부분 K_1 이나 K_2 는 물론 다른 하위담화표상에 있는 담화지시체 z, u, w, v 등 모든 담화지시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전제 K_1 과 K_2 에 설정되어 있는 대명사의 담화지시체들은 고유명사가 소개한 담화지시체 x 혹은 y 중 성수가 일치하는 담화지시체와 동일지시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한 동일지시관계 설정을 통하여, (7)의 전제부분은 해소될 수 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담화표상구조가 구축된다.



하지만, 위의 담화표상구조에 나타난 $z=x$ 와 $u=y$ 의 동일지시관계는 허용되지 않는 관계이다. 이제 해결해야 할 것은 동일지시관계 설정이 무슨 이유로 금지되는 것

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 동일지시관계 설정을 막는 것은, 위 (8)의 담화표상구조 구축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담화지시체간의 접근가능성에서 찾을 수 없다. 접근가능성이 아닌 다른 특성이나 개념에서 그 동일지시관계를 막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KGR은 이러한 이유로 대명사와 잠재적 선행사간의 어순에 있다고 추정한다.

We noted that *and* is only one of a number of words that form logical conjunctions in English. In some cases, like in that of *and* itself these conjunctions take the form of coordinations and in others (e.g. *because*) that of subordinations; but **in all these cases left-to-right order matters to anaphoric and presupposition resolution**,⁵ and therefore requires the use of ; in preliminary representation for the same reasons why it is needed in the representation of conjunctions with *and*. (KGR p.156, 볼드체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것임.)

하지만 KGR은 그 어순과 관련된 이유를 규칙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단순히 KGR의 순서 개념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마도 다른 여러 문헌에서처럼 대명사는 뒤에 오는 명사를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될 것이며, 이를 담화표상이론의 개념으로 표현을 바꾼다면, “대명사의 담화지시체는 뒤에 오는 명사의 담화지시체와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위에 언급된 동일지시관계와 관련된 어순의 제약 조건이 접근가능성과의 상관관계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KGR은 어순과 관련된 제약 조건을 명시화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어순과 접근가능성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6나)와 같은 예문을 고려할 때, KGR에 소개된 접근가능성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어순의 제약 조건이 접근가능성보다 우선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6나)와 같은 예문들은 (8)과 같은 담화표상구조 구축 과정을 거쳐 바람직하지 않은 동일지시관계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종속접속사가 포함된 복합문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9) 가. Smith₁ did not come to school because he₁ was s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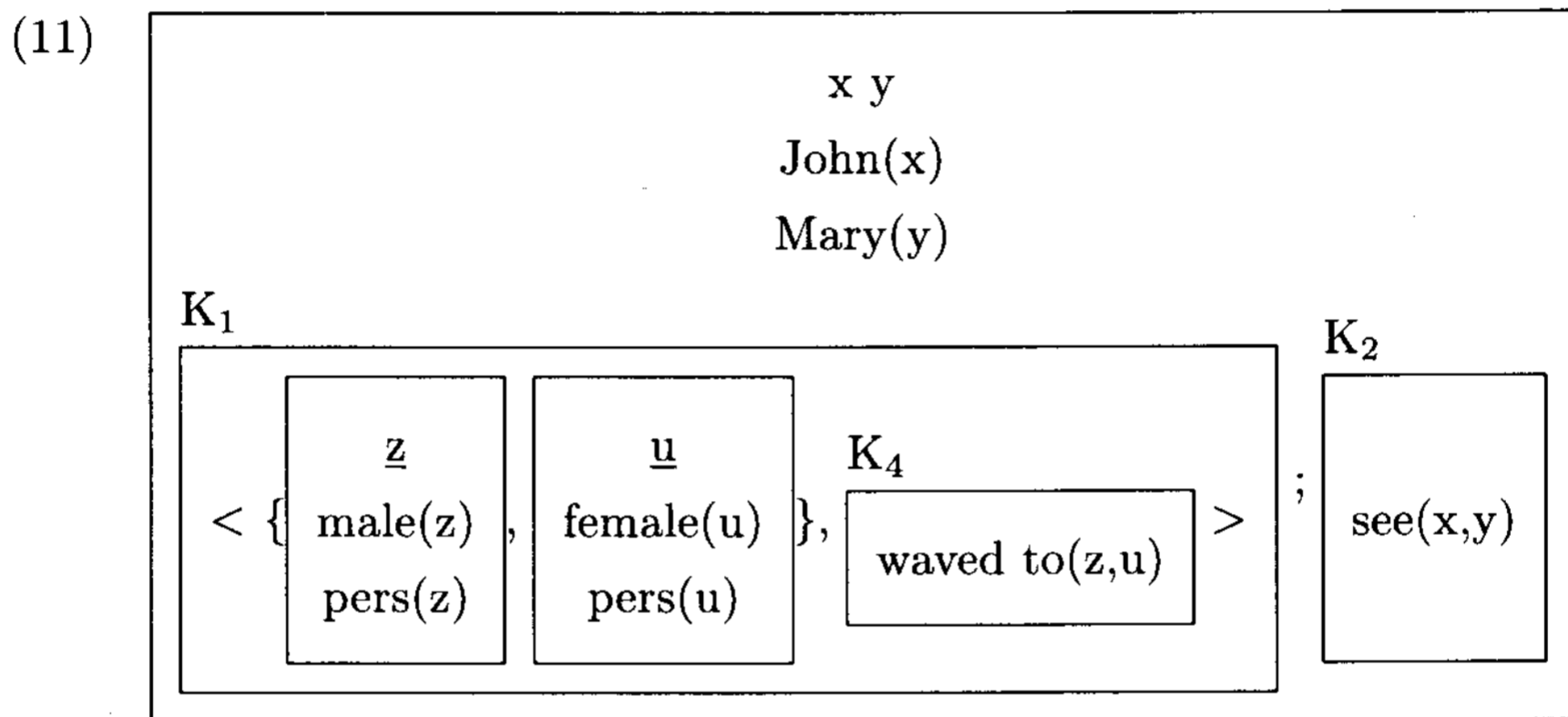
⁵ KGR(p.156)에는 “... in all these cases left-to-right order matters to anaphoric an presupposition resolution”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an’은 한 심사위원이 지적하였듯이 ‘and’의 오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나. *He₁ did not come to school because Smith₁ was sick.

(10) 가. John₁ waved to Mary₂ when he₁ saw her₂.

나. *He₁waved to her₂ when John₁ saw Mary₂.

위의 네 문장의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할 때, 모두 운용자 ‘;’가 두 절을 위한 담화표상 사이에 설정될 것이다. 그리고 (9나)와 (10나)의 비문법성은 (6나)의 비문법성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로써, (10나)의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중간 담화표상구조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대명사 *he*와 *her*가 소개한 담화지시체 *z*와 *u* 그리고 그 전제 부분은 해소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John*과 *Mary*가 소개한 담화지시체 *x*와 *y*가 비록 주담화표상에 있어 *z*와 *u*로부터 접근가능한 곳에 있지만, 앞에서 논의한 어순의 개념이 접근가능성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x*와 *z* 혹은 *y*와 *u* 사이에 동일지시관계가 설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운용자 ‘;’와 어순의 개념이 접근가능성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6), (9) 그리고 (10)과 같이 등위접속사 혹은 종속접속사 사용된 복합문에 나타나는 동일지시관계의 가능성 여부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어순의 제약이 접근가능성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면, (6), (9), (10)의 예문에 나타난 명사간의 동일지시관계 여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의 예문은 이러한 가정만으로는 영어의 복합문에 나타나는 동일지시관계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2) 가. When John₁ saw Mary₂, he₁waved to her₂.

나. When he₁ saw her₂, John₁ waved to Mary₂.

위의 두 예문은 지금까지의 가정에 최소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나는 접속사가 문장 중간에 나타난 (6), (9), (10)의 경우와 달리, 접속사가 문장 처음에 나타나는 경우, 운용자 ‘;’는 어디에 설정되어야 하는지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어순의 개념에 따라 대명사의 담화지시체는 뒤에 나오는 고유명사나 보통명사의 담화지시체와 동일지시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가정을 따른다면, (12나)의 문법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가정에 따르면, (12나)는 비문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2나)는 정문이다. 또한 많은 영어모국어자들은 종속절에 고유명사가 나오고 주절에 대명사가 나오는 (12가)보다 종속절에 대명사가 나오고 주절에 고유명사가 나오는 (12나)를 더 자연스런 문장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두 명사간의 동일지시관계 설정에 있어 어순의 개념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가정은 지켜질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논의된 예문들의 문법성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3. 역동적 담화표상구조

전절에서 *and*, *because*, *when* 등 접속사가 사용된 복합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간의 동일지시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KGR의 제안과는 달리 어순의 개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 절에서는 KGR의 분석과는 달리 등위접속사 구문과 종속접속사 구문은 서로 다른 형태의 담화표상구조를 이용하여 분석되어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when* 종속접속사 구문과 같은 종속접속사 구문은 Chung (1992)에서 간략히 소개하였듯이 조건절 구문과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살펴본다. 이어서 어순의 개념과 접근가능성을 같이 고려한 Chung (1992)의 종속접속사 구문 분석의 미비점을 보충하여 정소우 (2004)의 역동적 담화표상이론에 맞추어 소개한다.⁶ 그리고 등위접속사 구문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본다.

3.1 등위접속사 구문과 종속접속사 구문

여기서는 등위접속사 구문과 종속절 구문을 위한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할 때, KGR의 제안과는 달리 다른 운용자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 담화표상구조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룬다.

종속접속사 구문이 등위접속사 구문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구문 사이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차이점들은 대부분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기에, 여기서는 특별한 논의 없이 세 가지 차이점만 단순히 열거하도록 한다. 첫 번째 차이점은 접속사의 위치이다. *and*이나 *but*과 같은 접속사는 연결되는 두 절의

⁶ Chung (1992)은 *when*, *because* 등과 같은 종속접속사가 나타나는 복합문을 접속사 *if*가 사용된 복합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담화표상구조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고 있다. 또한 *and*이나 *but*과 같은 등위접속사가 사용된 복합문에 대하여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가운데에만 위치할 수 있는 반면, 종속접속사는 두 절의 가운데 외에 제일 앞부분에도 위치할 수 있다.

(13) 가. John loves Mary and he lives with her.

나. John loves Mary but he does not say anything to her.

다. *And John loves Mary, he lives with her.

(14) 가. John waved to Mary when he saw her.

나. John didn't come to school because he was sick.

다. When he₁ saw her₂, John₁ waved to Mary₂.

두 번째 차이점은 앞 절에서도 언급되었고 KGR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등위접속사 구문과는 달리 종속접속사구문의 경우 대명사는 선행사보다 앞서서 나올 수 있다. (14다)가 그 예가 된다.

세 번째 차이점은 등위접속사구문은 두 절에 나타나는 사건간의 시간적 혹은 원인 결과에 대한 관계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종속접속사구문은 두 사건의 시간적 관계 혹은 원인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준다.

(15) 가. Tim went to Busan and Sue visited her aunt.

나. When Tim went to Busan, Sue visited her aunt.

다. Tim went to Busan because Sue visited her aunt.

(15가)에서 Tim이 부산에 간 사건과 Sue가 이모를 방문한 사건 사이에 시간적 관계나 원인 관계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15나)에서는 두 사건 간의 원인 관계는 불분명하나,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다)에서는 Sue가 이모를 방문한 사건이 Tim이 부산에 간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가 전체 문장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⁷ 물론 아래와 같은 예문의 경우 등위접속사 *and*도 연결하고 있는 두 사건간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다.

(i) John hit Mary and she screamed.

(ii) Mary screamed and John hit her.

(i)에서 John이 Mary를 때린 것은 Mary가 소리를 지른 이유가 되며, (ii)에서 Mary가 소리를 지른 것이 John이 Mary를 때린 이유가 된다.

하지만 *and*의 이러한 특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로써 위의 두 예문은 모두 이유-결과적 사건 연결이 아닌, 두 별개의 사건이 단순 연결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등위접속사 *and* 구문이 항상 사건간의 시간적 연관성이나 이유-결과 관계를 알려주는 *when*, *because* 등과 같은 종속접속사 구문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담화표상구조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어진 문장을 접한 청자의 인지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등위접속사 구문과 종속접속사 구문의 담화표상구조는 이와 같은 접속사간의 의미적 차이를 올바르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이 논문은 등위접속사구문과 종속접속사구문을 ‘;’란 하나의 같은 운용자를 사용하여 분석하려는 KGR의 접근방법은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더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종속접속사 구문은 조건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담화표상구조가 구축이 되어야 하며, 등위접속사구문의 담화표상구조는 이와는 다른 형식이 되어야 함을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2 역동적 담화표상이론

여기서는 정소우 (2004)의 조건문 분석을 간략히 살펴본다. 정소우 (2004)는 후기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조건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16) 가. John₁ would court Mary₂ if he₁ loves her₂.

나. If John₁ loves Mary₂, he₁ would court her₂.

다. If he₁ loves her₂, John₁ would court Mary₂.

라. *He₁ would court her₂ if John₁ loves Mary₂.

위 조건문 분석을 살펴보는 이유는 앞에서 논의한 종속접속사 구문과 조건문의 명사간의 조응관계와 두 절에 나타나는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접속사의 정보기여도 측면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두 구문이 명사간의 조응관계에 있어서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위 (16)의 예문을 아래 (17)의 예문과 비교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7) 가. John₁ waved to Mary₂ when he₁ saw her₂.

나. When John₁ saw Mary₂, he₁ waved to her₂.

다. When he₁ saw her₂, John₁ waved to Mary₂.

모든 등위접속사가 *and* 과 같이 연결하는 두 사건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항상 모호한 것은 아니다.

(iii) John hit Mary but she just smiled.

(iii)에서 *but*은 John이 Mary를 친 사건과 Mary가 그저 웃기만 한 사건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치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but*의 의미가 항상 유지된다고 점에서, *but*은 *and*보다는 *when*이나 *because*와 같은 종속접속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4)와 (15)에서 보이는 명사간의 조응관계나, 접속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장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and*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까닭으로 여기서는 *but*을 *and*과 같은 종류로 분류한다. 하지만 *but*에 대한 담화표상구조는 분량의 문제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라. *He₁ waved to her₂ when John₁ saw Mary₂.

(16)과 (17)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명사 간의 조응관계는 정확하게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위 (16)과 (17)의 비교를 통해 조건문의 운용자 *if*의 정보 기여도가 다른 종속접속사의 정보 기여도와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로써, (16가)에서 조건절 사건은 주절 사건의 평가 기준이 된다. (17가)에서 *when* 종속절 사건 역시 주절 사건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Heim (1982), Hinrichs (1986), Enç (1987) 그리고 Partee (1984) 등 많은 문헌을 통해서 밝혀졌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지 않는다. 물론, *when* 종속접속사 구문이 *if* 종속접속사 구문과 의미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사한 것은 아니다. 그 차이점으로 *when* 절과 *if* 절은 문장전체의 진리조건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when* 종속접속사 구문의 경우 전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when* 절의 내용도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반면, *if* 종속접속사 구문의 경우 전체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 *if* 절의 내용이 반드시 참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if* 절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전체 문장은 참인 된다. 반면, *when* 종속접속사 구문의 경우, *when* 절이 내용이 거짓이면 전체 문장은 거짓이 된다. 가령, (17나)의 경우 *when* 절에 나타난 사건 즉 *John*이 *Mary*를 본 것이 거짓이라면 전체 문장은 거짓이 되지만, (16나)의 경우 *if* 절의 내용 즉 *John*이 *Mary*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전체 문장은 참이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when* 절과 *if* 절이 전체 문장의 진리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이 논문의 초점 대상인 명사간의 조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혀둔다.

이제 정소우 (2004)가 위 (16)의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분석을 살펴볼도록 하자. 정소우의 분석은 Kamp (1984)의 초기 담화표상이론에서 KGR의 후기 담화표상이론에까지 유지되어온 접근가능성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순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차이점은 Kamp (1984)나 KGR의 담화표상구축 규칙과는 달리, 정소우는 아래 (18)에 제시된 Chung (1992)의 선형분석 기본 원리를 따라, 지표가 같은 두 개의 담화표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가 같은 두 개의 담화표상은 KGR이 다루지 않은 (16가)와 (16라)와 같이 어순상 조건절이 주절보다 뒤에 나오는 조건문을 분석하기 위한 장치로, 그 생성 규칙은 아래와 같다.

(18) 선형 원리와 비동일지시규칙 (Chung, 1992)

가. 모든 표현은 어순에 따라 분석된다.

나. 대명사에 의해 도입되는 담화지시체는 같은 담화표상에 나중에 도입되는 담화지시체와는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19) 담화표상구축 원리와 접근가능성 (정소우, 2004)⁸

가. 정의 0.2

(viii) K_r 이 담화표상이라면, $K_r \Rightarrow K_r$ 은 담화조건이 될 수 있다.

나. K_r 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K_m 의 하위담화표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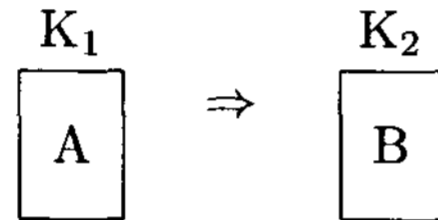
(iv) $K_r \Rightarrow K_m \wedge r=m$

다. 아래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담화표상 K_m 은 K_r 에서 접근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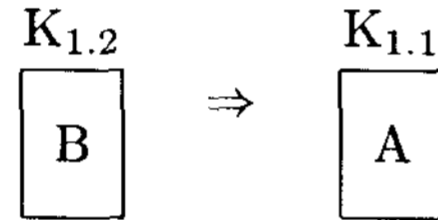
(iii) $K_r \Rightarrow K_m \wedge r=m$ 인 경우

이제부터 편의상 위의 규칙에 따라 여기에 제시된 분석을 ‘역동적 담화표상이론’이라 부른다. 역동적 담화표상이론에서 조건문은 주절과 조건절의 발화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게 된다.

(20) 가. If A, B 유형 조건문의 담화표상구조



나. A if B 유형 조건문의 담화표상구조



위 (20 나)에 사용된 이중지표는 Chung (1992)과 정소우 (2004)에서 사용되지 않은 표기법이다. 이 이중지표의 두 번째 지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첨가한 것이다. 두 번째 지표는 해당 담화표상이 생겨난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⁸ 여기 제시된 담화표상 생성규칙과 접근가능성 원리는 아래와 같이 KGR의 규칙 (KGR pp. 21-23)에 접목되는 것이다.

a. DEFINITION 0.2.

(viii) if K_r is a DRS, then $K_r \Rightarrow K_r$ is a condition.

b. DEFINITION 0.5. K_r is an immediate sub-DRS of K_m , $K_r < K_m$, if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holds:

- (i) $\neg K_r \in \text{Con}_{K_m}$
- (ii) there is a DRS K_2 sth. $K_r \Rightarrow K_2 \in \text{Con}_{K_m}$ or $K_2 \Rightarrow K_r \in \text{Con}_{K_m}$
- (iii) there is a DRS K_2 sth. $K_r \vee K_2 \in \text{Con}_{K_m}$ or $K_2 \vee K_r \in \text{Con}_{K_m}$
- (iv) $K_r \Rightarrow K_m \wedge 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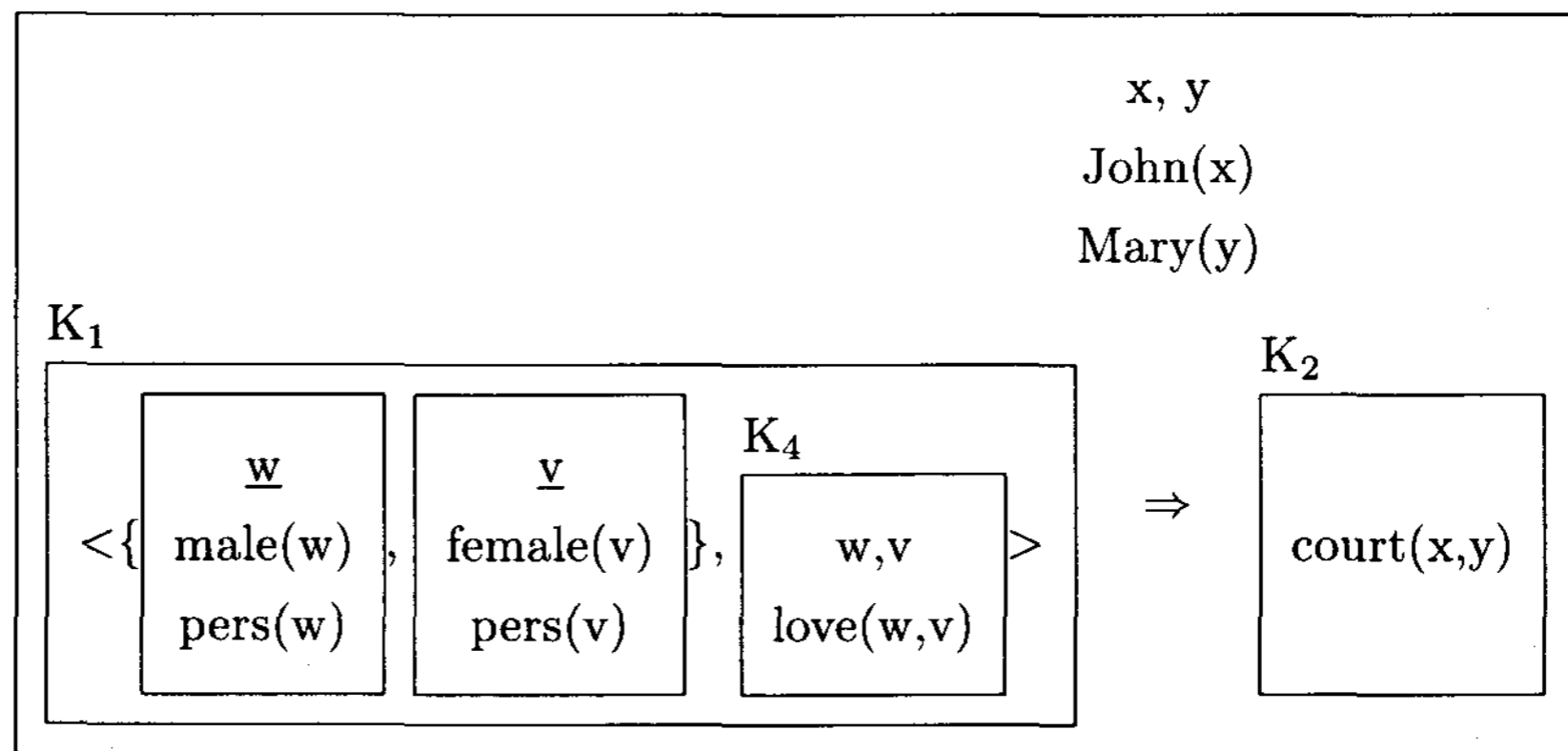
c. DEFINITION 0.7. Given DRSs K_m and K_r , K_m is accessible from K_r , in symbols $K_m \text{ acc } K_r$, iff

- (i) $K_r \leq K_m$; or
- (ii) there exists DRSs K_2 and K_3 , sth. $K_2 \Rightarrow K_3$ and $K_m \text{ acc } K_2$ and $K_3 \text{ acc } K_r$; or
- (iii) $K_r \Rightarrow K_m \wedge 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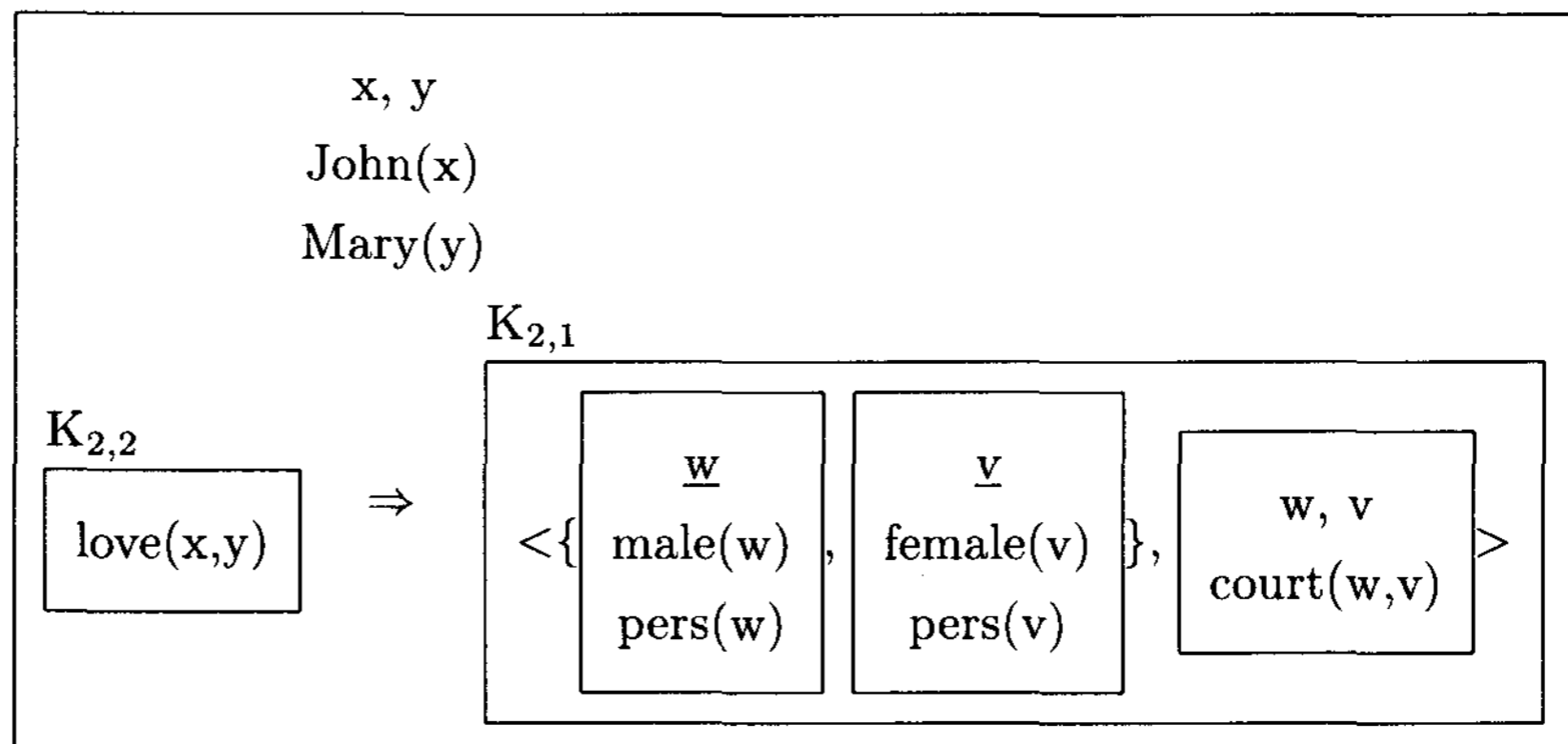
$K_{1.1}$ 이 $K_{1.2}$ 에 비해 앞서 생긴 것임을 의미할 뿐, 접근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후의 담화표상구조에서도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이중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담화표상 사이의 접근가능성은 (19)의 규칙에 의거한다. 이에 따르면 (20나)의 경우, A 즉 주절이 분석되는 오른쪽 담화표상 $K_{1.1}$ 이 B 즉 조건절이 분석되는 왼쪽의 담화표상 $K_{1.2}$ 보다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상위담화표상이 된다. 이는 조건절에 의해 도입되는 왼쪽의 담화표상이 주절에 의해 도입되는 오른쪽의 담화표상에 비해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상위담화표상이 되는 (20가)의 경우와는 반대의 현상이다.

이제 역동적 담화표상이론은 앞의 (16다)와 (16라)에 나타난 명사 간의 조응관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아래 (21가)와 (21나)는 각각 (16다)와 (16라)의 중간담화표상구조가 된다.

(21)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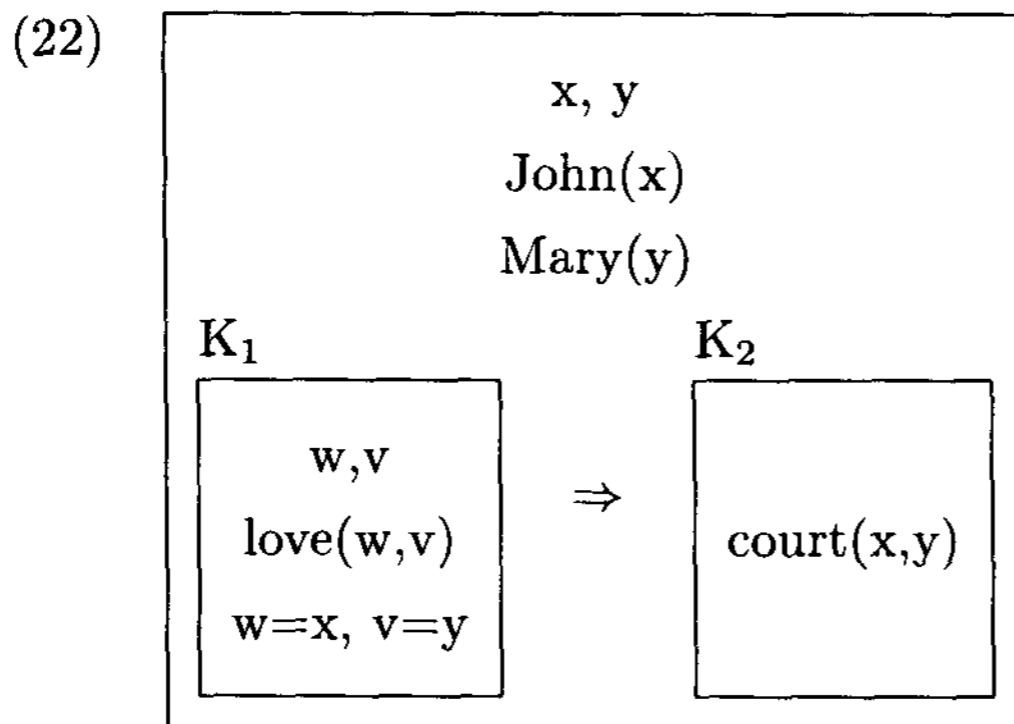


나.



담화표상구조 (21가)에서 고유명사 *John*과 *Mary*에 의해 도입되는 담화지시체 x 와 y 는 전제해소 과정을 거친 후, 주담화표상 K_0 로 상승한다. 그 결과 x 와 y 는 대명사 *he*와 *her*에 의해 도입되는 담화지시체 w 와 v 로부터 접근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w=x$ 와 $v=y$ 라는 동일지시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 이후, 전제 해소 규칙과

합병 규칙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담화표상구조는 아래와 같다.



반면, 담화표상구조 (21나)에서, 주절에 있는 대명사의 전제 부분 K_3 와 담화지시체 w 와 v 는 어순상 먼저 구축된 오른쪽의 담화표상 K_2 에 소개된다. 이어 조건접속사 *if*에 의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담화표상 K_2 즉 $K_{2,1}$ 를 둘로 분열하며 새로 구축된 왼쪽의 K_2 즉 $K_{2,2}$ 에 고유명사 *John*과 *Mary*의 담화지시체 x 와 y 그리고 담화조건 $\text{John}(x)$ 과 $\text{Mary}(y)$ 가 소개된다. 이후 전제해소과정을 거쳐 $x, y, \text{John}(x)$, 그리고 $\text{Mary}(y)$ 는 주담화표상으로 상승을 한다. 하지만, 대명사 *he*와 *her*의 담화지시체 w 와 v 그리고 전제 부분인 K_3 는 해소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대명사가 속하는 주절이 분석될 당시, 담화표상구조에 존재하는 다른 담화지시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왼쪽의 $K_{2,2}$ 에 비동일지시규칙에 의거하여 $x \neq w$ 와 $y \neq v$ 라는 조건이 설정될 수 있다.⁹ 또한, 달리 조건절의 *John*과 *Mary*가 가리키는 대상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가 담화세계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21나)에서 도출되는 최종담화표상구조는 (21나) 그 자체가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21나)의 담화표상구조는 더 이상 발전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명사 *he*와 *her*에서 비롯되는 전제 부분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21나)의 담화표상구조는 (16라)를 들은 청자가 두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청자는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담화세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1)의 두 담화표상구조는 (16다)와 (16라)를 접한 청자들의 심상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3 역동적 담화표상이론과 종속접속사 구문

여기서는 Chung (1992)에 간략히 제시된 종속접속사 구문에 대한 분석을 앞항에 소개된 역동적 담화표상이론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⁹ 하지만 비동일지시관계는 비동일지시규칙에 의거하여 추론될 수 있는 담화조건일 뿐, 반드시 담화표상구조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와 같은 비동일지시관계는 따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괄호로 묶어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when* A, B와 *A when* B 형태의 복합문을 위한 통사규칙과 담화표상구조 생성 규칙은 다음과 같다.

(23) 가. 어휘부

(vii) 논리부호는 {=, ¬, V, ⇒, ;, ⇨}이다.

나. 통사규칙

(i) A, B ∈ S 이면, *when* A, B와 *A when* B 역시 문장이다.

다. 담화표상 생성규칙

(ix) Kr 이 담화표상이라면, Kr ⇨ Kr 은 담화조건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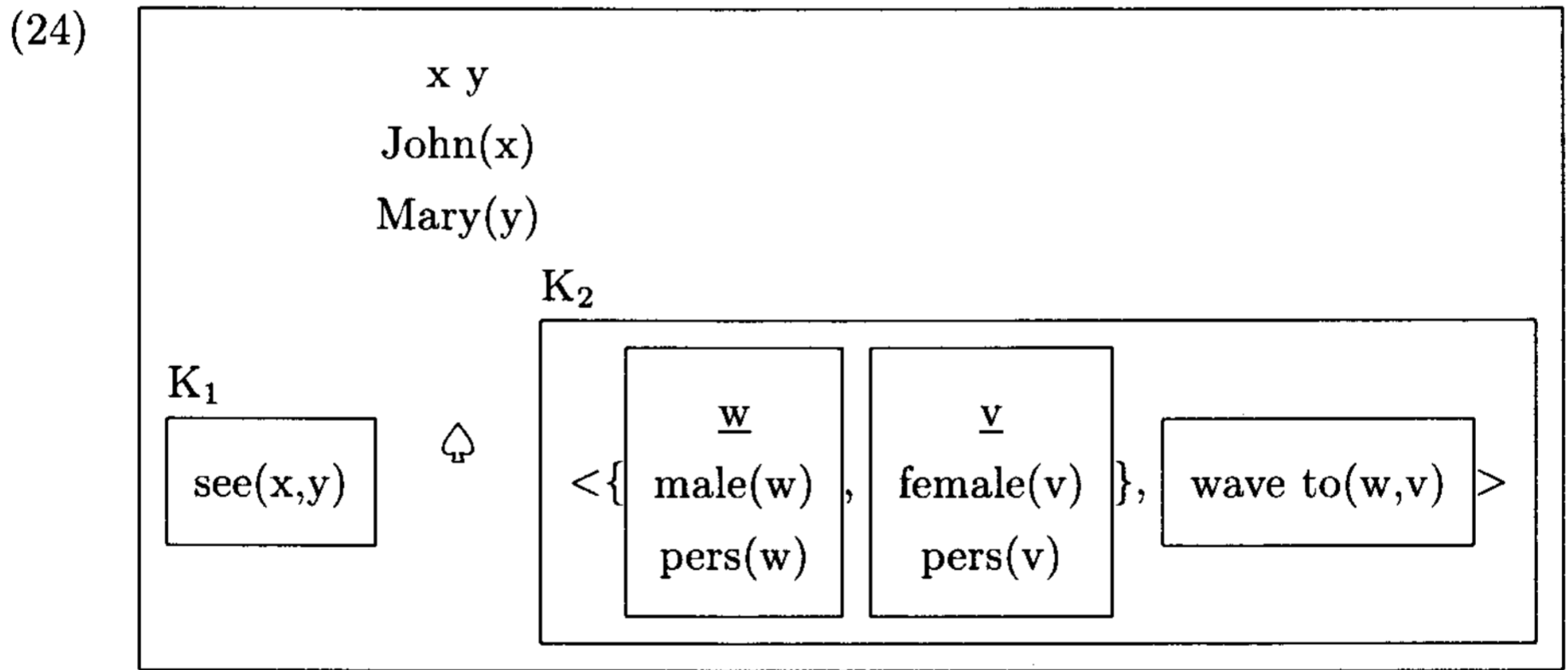
라. 담화표상 구조 - Kr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Km의 하위담화표상이 될 수 있다.

(iv) $Kr \supseteq K_m \wedge r=m$

마. 접근가능성 원리 - 아래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담화표상 Km은 Kr에서 접근 가능하다.

(iii) $Kr \supseteq K_m \wedge r=m$ 인 경우

이제 앞에 제시된 *when* 종속사 구문 중 하나인 (17나)의 중간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한다면 아래와 같다.



위에서 ‘⇨’는 *when*의 의미를 나타내는 운용자이다.¹⁰ 그 의미는 담화표상 K₁을 만족시키는 함수 f가 또 다른 담화표상 K₂를 만족시키도록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현재의 담화표상이론에 설정된 운용자 *if*의 ‘⇒’의 의미와 별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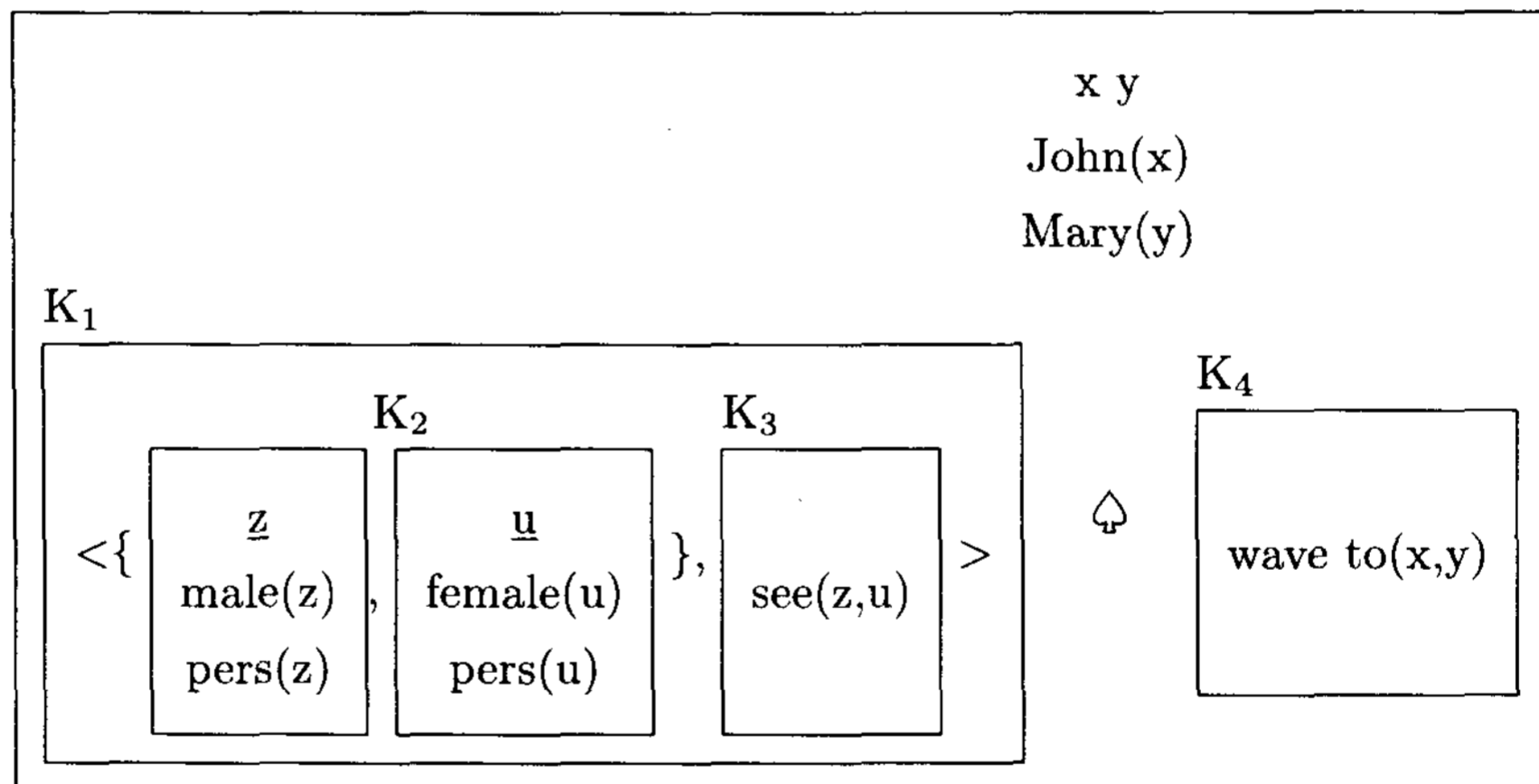
¹⁰ Chung (1992, 121-122)는 *when* 절을 분석하기 위해 부호 ‘♥’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Chung은 또한 *although* 절을 위해서 부호 ‘♠’를 사용한다. 하지만 Chung은 이러한 운용자가 *if* 운용자 ‘⇒’와의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문에서는 *when*에 대한 부호로써 ‘♥’가 아닌 ‘⇨’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의미 측면이나 통사 측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필자 개인의 시각적인 선호도 변화와 부호 ‘♥’가 인쇄시 간혹 얼룩으로 오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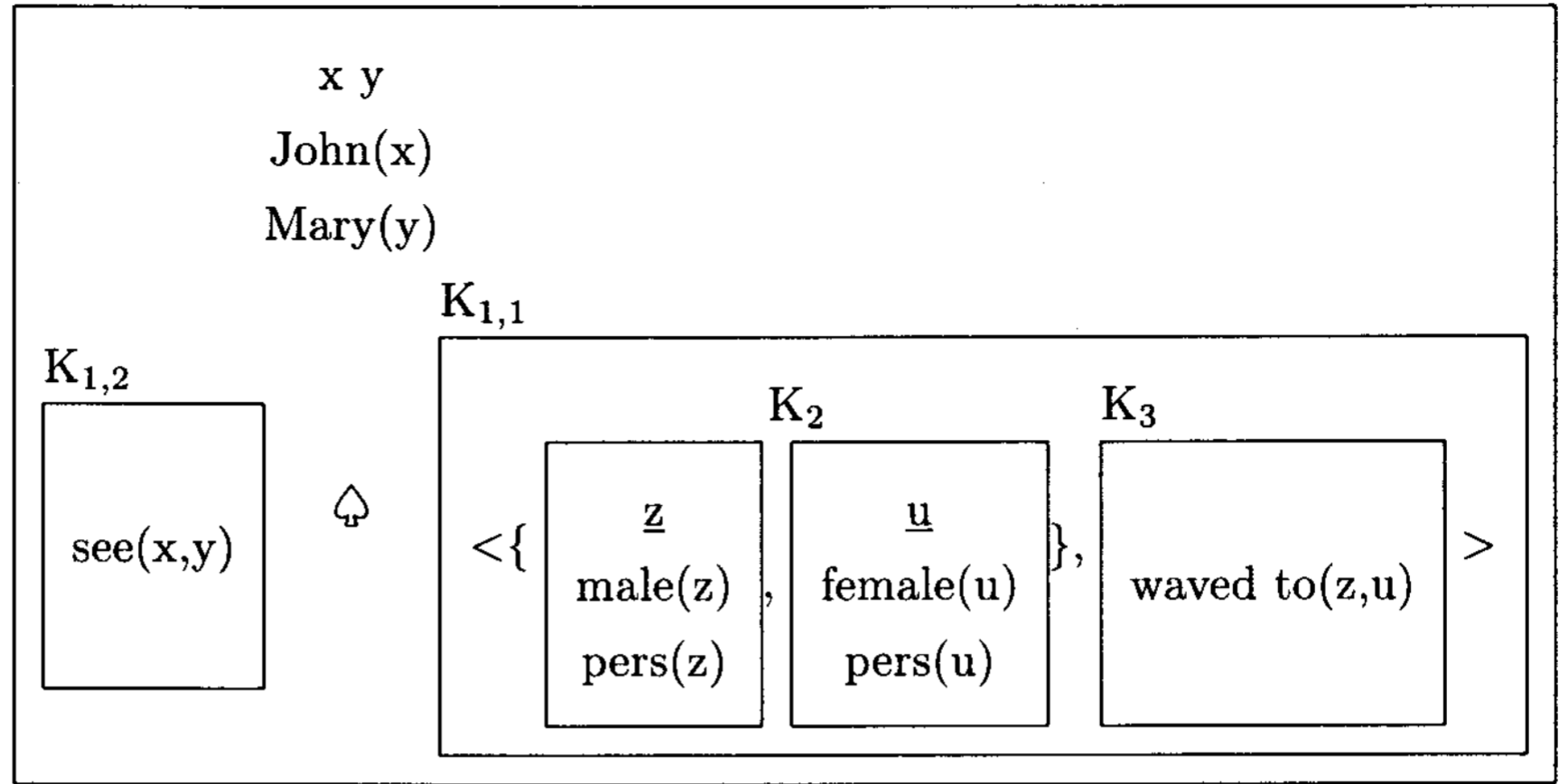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두 운용자 의미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3.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 $K_1 \Rightarrow K_2$ '의 경우 K_1 가 거짓인 경우 전체 문장이 참이지만, ' $K_1 \triangleleft K_2$ '의 경우 K_1 가 거짓인 경우 전체 문장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운용자 ' \triangleleft '는 KGR의 운용자 ';'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3.1에서 여러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 운용자가 나타나는 담화표상구조 환경은 ';'가 나타나는 담화표상구조 환경과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안된 ' \triangleleft '는 KGR의 ' \Rightarrow '나 ';'의 어느 운용자와도 다른 것이다. 또한 이미 3.1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속접속사 *when*은 등위접속사 *and*와는 달리 주절사건과 종속절 사건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 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when*의 의미를 나타내는 ' \triangleleft '는 *and*의 의미를 나타내는 ';'와는 기능면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앞에서 KGR의 ';'를 이용한 분석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17다)와 (17라)에 나타난 조용관계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8)과 (19)의 원리를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에 접목시킨 역동적 담화표상이론에 맞추어 (17다)와 (17라)를 위한 담화표상구조의 중간 단계를 구축하면 각각 아래의 (25가)와 (25나)가 된다.

(25) 가.



나.



(25가)에서 주절보다 앞에 나오는 *when* 절이 먼저 분석되는데, 이때 대명사 *he*와 *her*를 근거로 담화세계에 남성 1인과 여성 1인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화표상 K_2 에 나타내고, 또한 그 전제에 입각하여 그 남성이 여성을 보았다는 담화조건을 담화표상 K_3 로 나타낸 것이다. 또 다른 하위 담화표상 K_4 는 *John*이 *Mary*에게 손을 흔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고유명사 *John*과 *Mary*에 의해 발생하는 전제와 담화지시체가 도입되는 하위담화표상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정한 전제 해소 과정을 거쳐 삭제되었으며 남은 담화지시체는 주담화표상으로 상승된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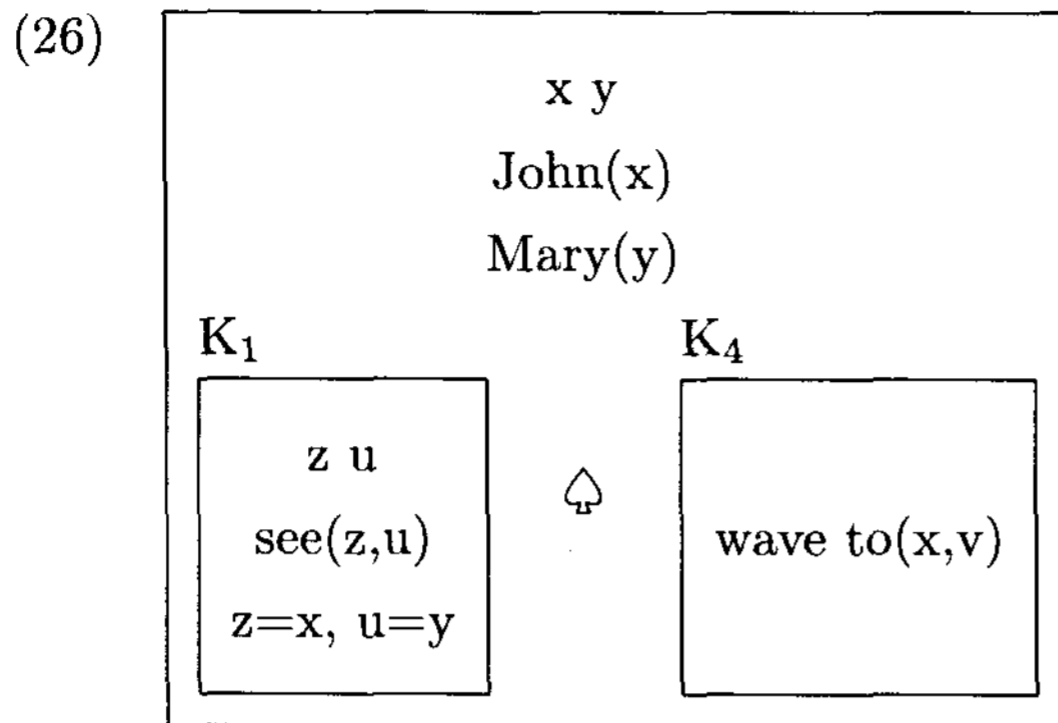
(25나)에서는 주절 *he waved to her*가 먼저 하위 담화표상 K_1 에 분석된다. 이때 대명사 *he*와 *her*에 의해 생기는 전제와 그 담화지시체는 K_2 에 설정되며, 나머지 내용이 K_3 에 분석되는 것은 (25가)에 소개된 과정과 같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when* 절이 분석되는 과정이다. 이미 주절이 K_1 에 분석된 후 *when* 절이 도입됨에 따라, 지금까지 구축되던 하위 담화표상 K_1 가 자가분열되어 $K_{1,2} \diamond K_{1,1}$ 의 형태의 담화표상구조가 생성된다.

여기서 $K_{1,2} \diamond K_{1,1}$ 의 의미는 $K_{1,2}$ 에 분석된 *when* 절의 내용이 주어진 문맥 K_0 에서 참이고, $K_{1,1}$ 에 분석된 주절의 내용이 K_0 에 첨가된 새로운 문맥에서 참이면, 전체 $K_{1,2} \diamond K_{1,1}$ 가 참이 되며, 여기에 *when* 절의 사건과 주절의 사건 사이에 시간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¹¹

위 두 담화표상구조에서 남은 것은 대명사 *he*와 *her*에 의해 발생한 전제를 해소하고 그 담화지시체 z 와 u 의 선행사를 찾아 동일지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5가)에서는 쉽게 이루어진다. 하위 담화표상 K_2 의 전제와 담화지시체는 주절 *John waved to Mary*를 위한 하위 담화표상 K_4 가 완성된 후 주담화표상으로 상승된 담화지시체 x 와 y 를 근거로 전제가 해소되고 담화지시체 z 와 u 는 동일지시관계를 설

¹¹ Hinrichs (1986)은 *when* 종속절의 사건과 주절 사건의 시간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 종속절 사건과 주절 사건이 모두 성취사건이나 완수사건일 경우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겹치거나, 연결하거나, 혹은 시간적인 겹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ii) 두 사건 중 어느 사건이라도 지속사건 (상태사건이나 동작사건)인 경우,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포함관계가 설정된다.

정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 생성되는 담화표상구조는 아래와 같다.



반면, (24나)에서는 이와 같은 동일지시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위담화표상 K_3 에 있는 전제와 담화지시체 z 와 u 는 모두 K_1 에 속하며, 또한 고유명사 *John*과 *Mary*의 담화지시체 x 와 y 역시 K_1 에서 나온 것으로, 이 담화지시체들은 비동일지시관계규칙에 의거하여 동일지시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24나)의 담화표상구조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으며,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담화표상구조가 미완성 상태로 남는다는 것은 그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한 담화를 들은 청자가 그 담화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5나)의 경우는 청자가 주절의 대명사 *he*와 *her*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he*와 *her*가 *John*과 *Mary*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뿐 그 이상의 정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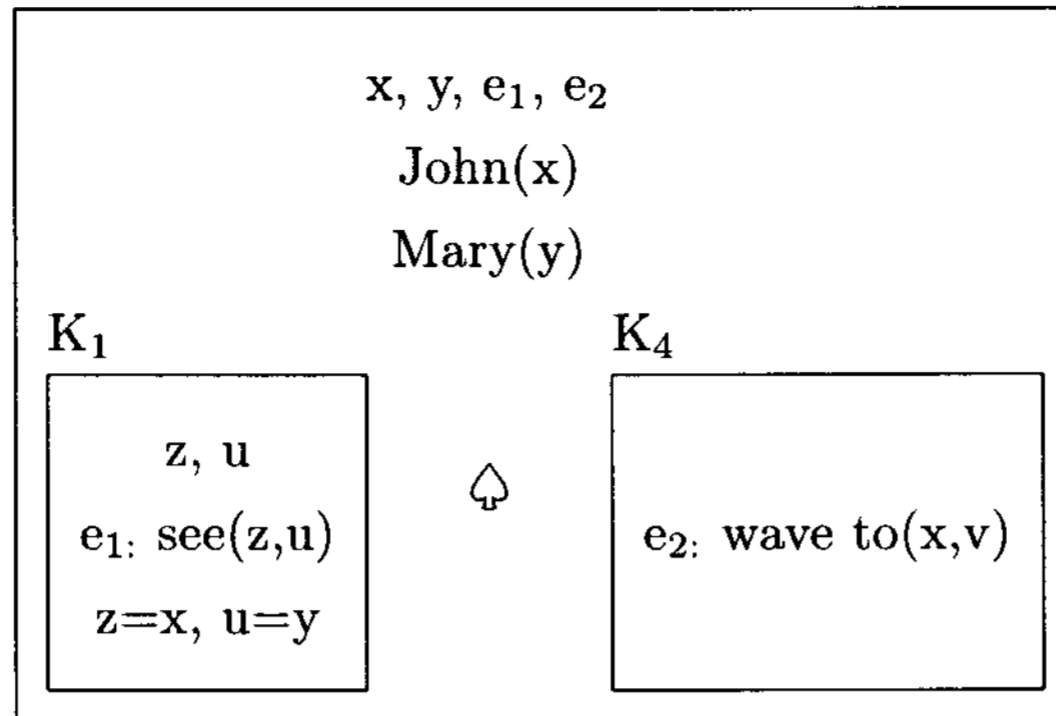
이 항을 마치기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위 (26)의 담화표상구조는 하나의 추가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3.2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when A, B*의 복합문은 *if A, B*의 조건문과 달리 A와 B의 내용에 해당하는 두 특정 사건이 담화세계에 존재하여야 전체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when* 절이 포함된 복합문의 의미 특성은 아래 (27가)와 같이 사건 담화지시체를 주담화표상에 도입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¹² 반면 *if* 절의 의미 특성은 (27나)와 같이 사건 담화지시체를 *if* 절에 의해 도입되는 하위담화표상에 설정하면 된다.

¹² *when A, B* 형태의 모든 복합문이 주절 사건과 종속절 사건에 해당하는 특정 사건이 담화세계에 존재해야만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습성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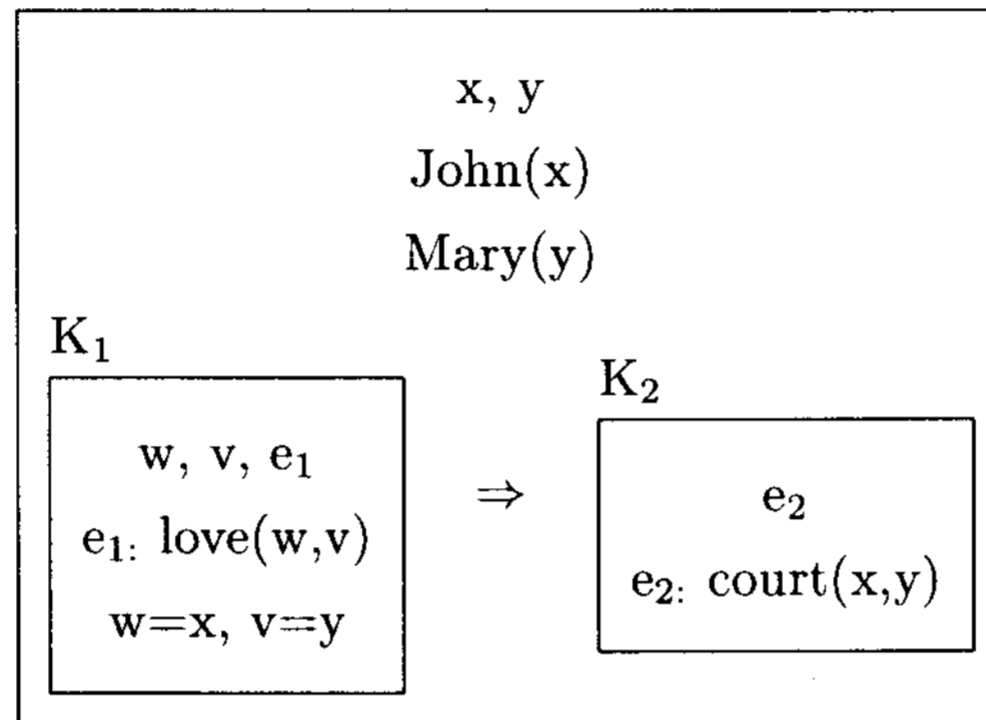
- (i) When teachers assign homework, students usually feel an obligation to do it.
- (ii) When you send an e-mail you can also send a sound or graphic file as an attachment.
(Collins Cobuild Dictionary on CD-Rom 2006에서 발췌)

위 두 예문의 경우 *when*의 의미적 특성 외에도, *usually*와 *can*에서 비롯된 일반성(*generic*)의 의미도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이 두 예문은 종속절과 주절에 나타난 두 사건이 담화세계에 존재하지 않아도 전체 문장이 참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두 예문은 3.2에서 다룬 조건문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담화표상구조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으며,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27) 가.



나.



위 (27)의 담화표상구조에 사용된 사건 담화지시체는 이미 담화표상이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건 담화지시체가 논의상 필요 없어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계속하여 이 논문에서는 담화표상구조를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사건 담화지시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3.4 역동적 담화표상이론과 등위접속사 구문

이제 앞에서 논의된 등위접속사 구문의 조응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편의상 (6)의 예문을 여기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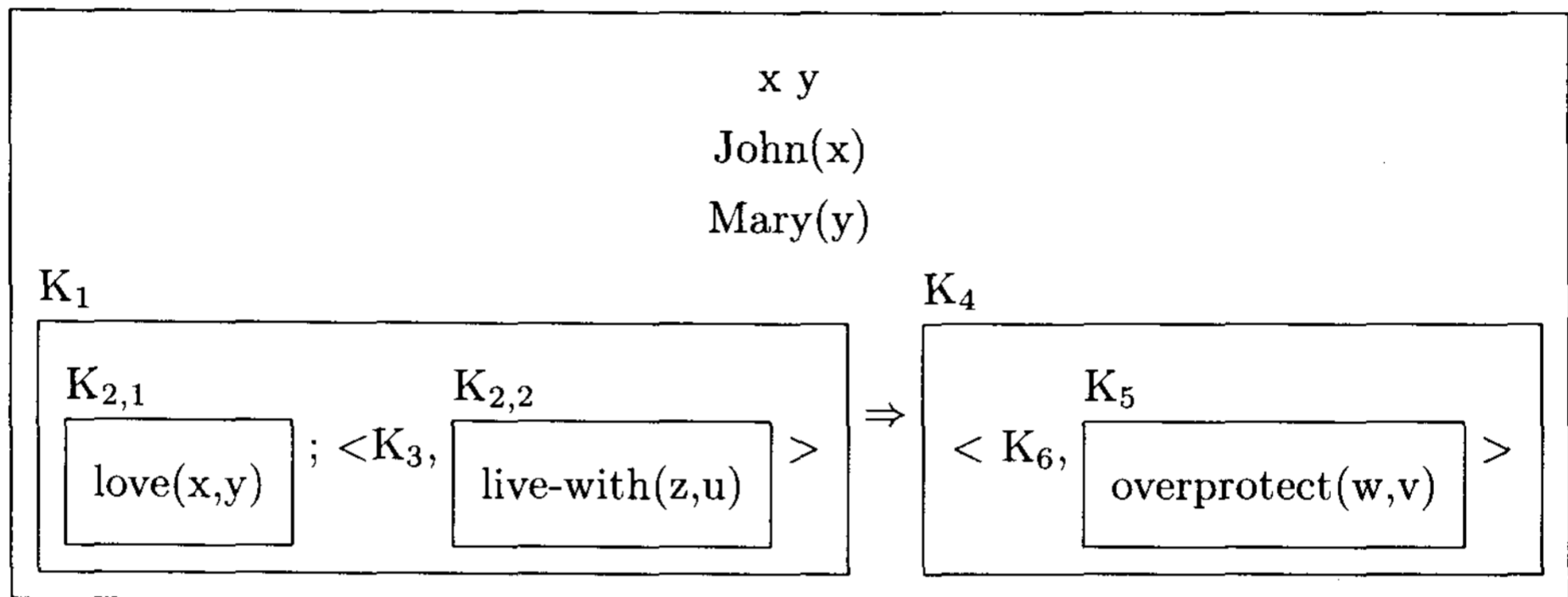
(28) 가. If John₁ loves Mary₂ and he₁ lives with her₂, then he₁ overprotects her₂.

나. *If he₁ loves her₂ and John₁ lives with Mary₂, then he₁ overprotects her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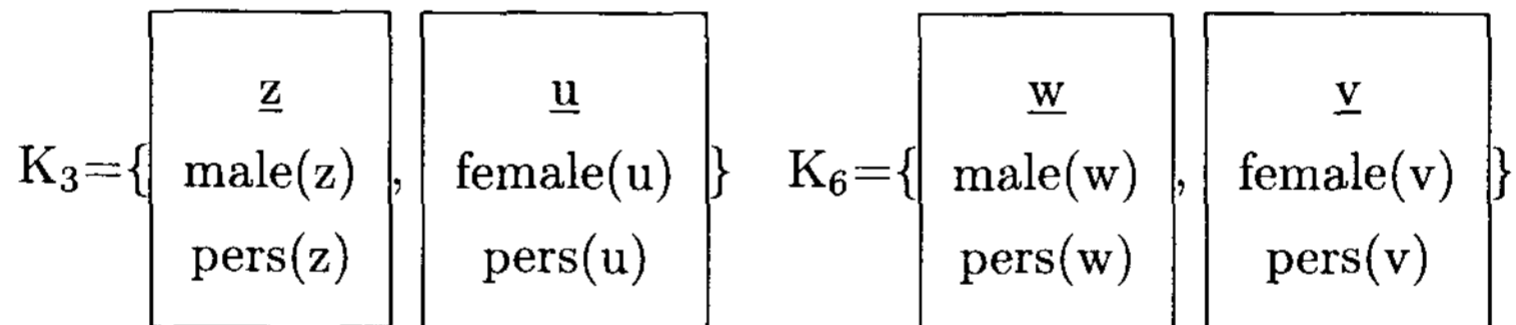
2.2 절에서 논의하였듯이, KGR의 담화표상이론에 단순히 어순의 개념만을 도입해서는 (28 나)의 비문법성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는, 3.2 절에서 소개한 동일지표를 가진 두개의 담화표상과 비동일지시관계 규칙을 이용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3.3 절에서 우리는 이미 어순과 동일지표를 가진 두 개의 담화표상을 이용하여 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고유명사와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대명사와 고유명사에 의해 도입되는 담화지시체를 같은 지표를 가진 담화표상에 소개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여기서는 같은 방법을 위의 (28)의 경우에 적용하고자 한다. (28)의 등위접속사 구문을 같은 지표를 가진 두 개의 담화표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즉, 등위접속사로 연결되는 두 개의 등위구문은 지표가 같은 두개의 담화표상에 분석된다고 가정하고, 이 가정 하에서 (28)의 등위접속사 구문의 담화표상구조는 아래 (29)와 같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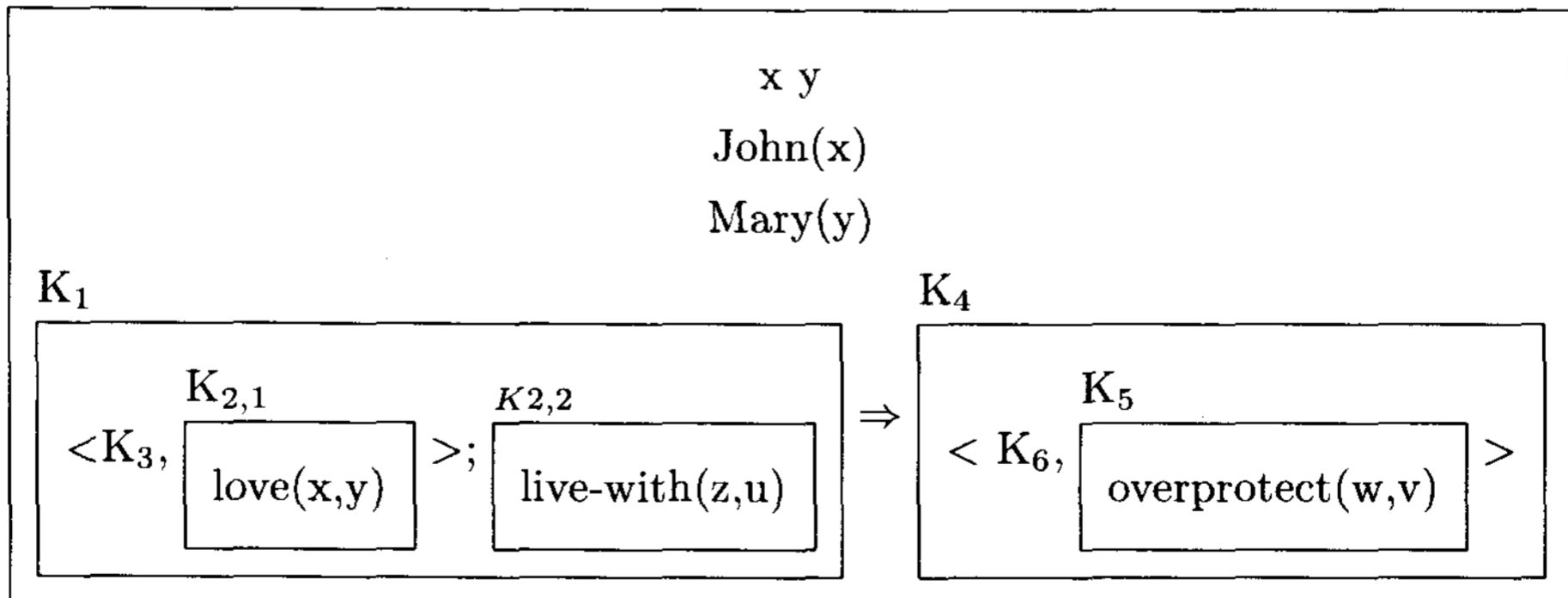
(29) 가. K_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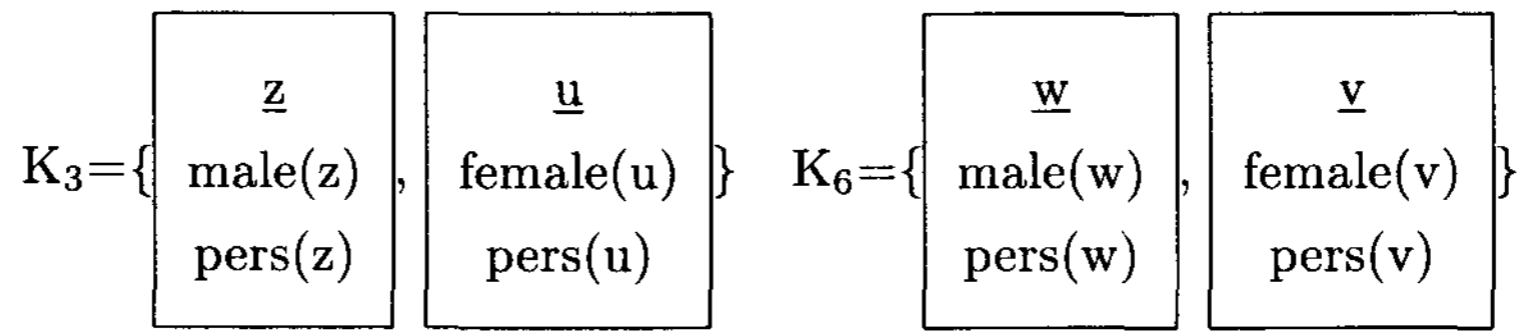
여기서 K_3 와 K_6 는 각각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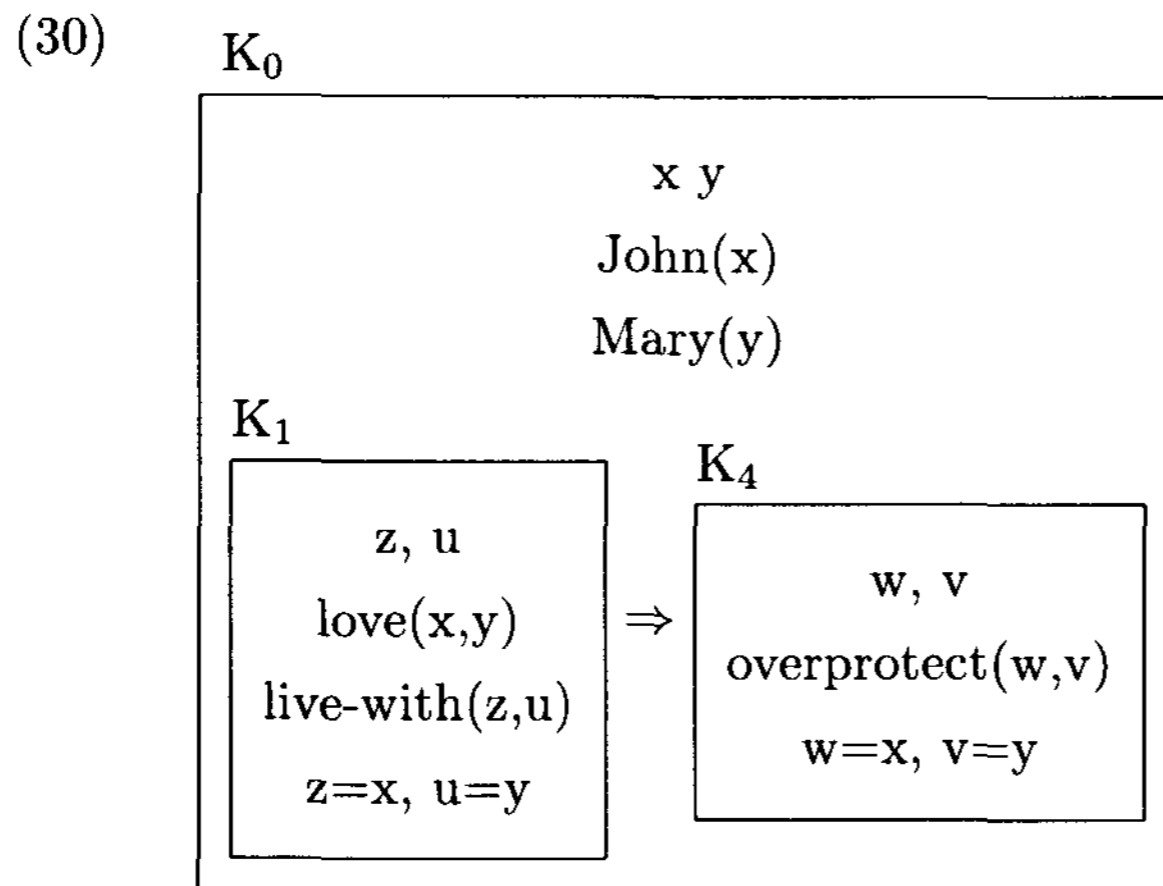
나. K_0



여기서 K_3 와 K_6 는 각각 다음과 같다.



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위 두 담화표상구조에서 고유명사 *John*과 *Mary*에 의해 도입되는 담화지시체는 주담화표상에 위치하므로, K_2 를 비롯한 모든 담화표상에 있는 대명사는 이 담화지시체에 접근가능하다. 그러므로 (29가)의 조건절 대명사 *he*와 *her*에 의해 도입되는 담화지시체 z 와 u 는 각각 x 와 y 와 동일지시관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주절의 대명사 *he*와 *her*에 의해 도입되는 담화지시체 w 와 v 도 각각 x , y 와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제 내용이 모두 해소되며, 이에 해당하는 담화표상은 2.1항에서 언급된 합병규칙에 의해 소거되어, 아래 (30)의 담화표상구조가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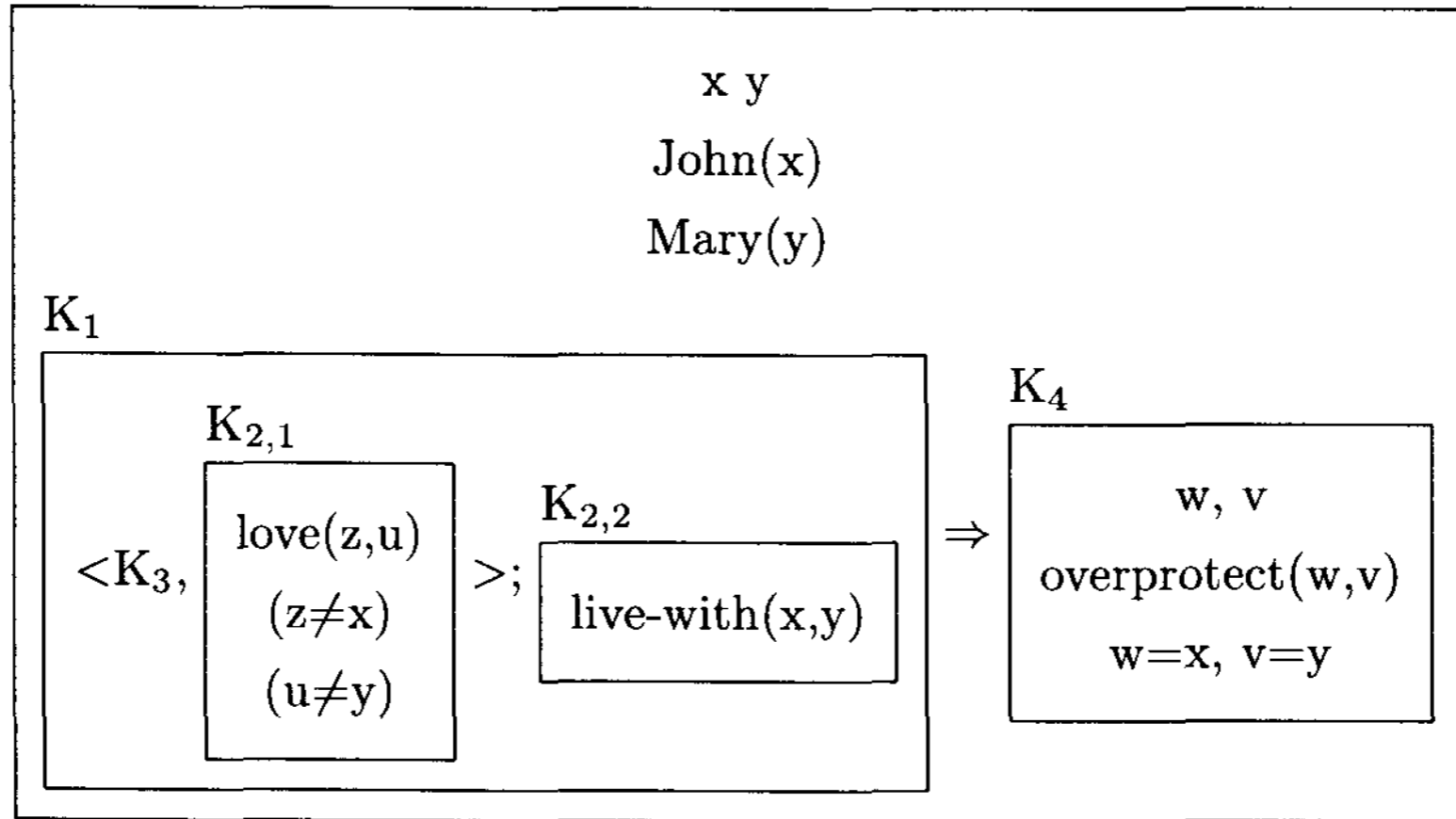


위 담화표상구조 (30)은 담화세계에 x 와 y 라는 두 개체가 존재하며, x 의 이름은 *John*이고 y 의 이름은 *Mary*이고 x 가 y 를 사랑하고 같이 산다면, x 는 y 에게 도가 지나치게 보호를 한다는 내용의 인지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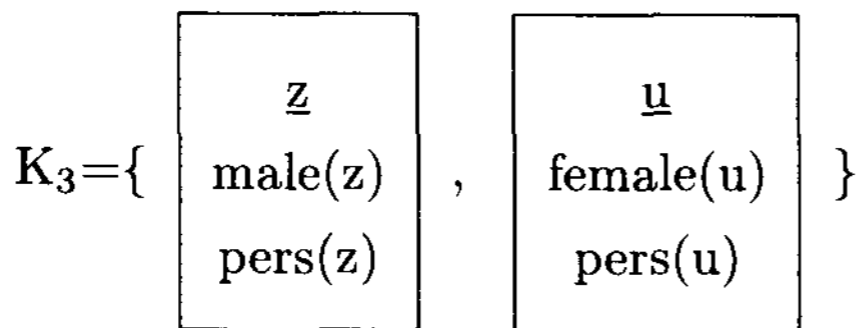
반면 (29나)에서는 z 와 u 가 *John*과 *Mary*가 처음 소개되는 담화표상 $K_{2,2}$ 와 같은 지표를 가진 담화표상 $K_{2,1}$ 에 *John*과 *Mary*의 담화지시체 x 와 y 보다 먼저 도입되므로, 3.1에서 설명한 비동일지시규칙에 의해서 동일지시관계를 가질 수 없다. 오히려 비동일지시관계 규칙에 의거하여 $z \neq x$ 와 $u \neq y$ 라는 비동일지시 조건이 설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담화표상 구조 K_3 에 설정된 담화지시체 z 와 u 는 현 담화세계에서 선행사를 찾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K_3 의 전제 내용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주절의 대명사 *he*와 *her*에 의해 도입되는 w 와 v 는 각각 x 와 y 와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_6 의 전제 내용은 해소되고, 합병규칙에

의해 담화표상 K_6 와 K_5 는 하나로 합치된다. 그 결과 나오는 담화표상구조는 (31) 이 된다.

(31) K_0



여기서 K_3 는 다음과 같다.



위 담화표상구조는 담화세계에 x 와 y 라는 두 개체가 존재하고, x 의 이름은 *John* 이고 y 의 이름은 *Mary* 이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John* 이 아닌 한 남자가 *Mary*가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하고, *John* 이 *Mary*와 같이 산다면, *John* 은 *Mary*를 과잉보호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이 해석에서 *John* 이 아닌 그 남자와 *Mary*가 아닌 그 여자는 담화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령 그들이 담화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자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이는 (28나)에 지표로 표시된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담화표상구조간의 차이는 (28가)와 (28나)의 두 문장을 접한 청자가 갖게 되는 인지상태의 차이점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제시한 등위접속사 구문에 대한 분석은 올바르다고 간주할 수 있다.¹³

¹³ Biber et al. (1999), Mair and Hundt (1997), Dorgeloh (2004) 등 여러 문헌에 제시되었듯이, 등위 접속사 *and*는 아래 예문 (ii)에서와 같이 문두에 나올 수 있다.

- (i) He had a dream. He lived in a dream, and Martin Luther King made his dream come true.
- (ii) He had a dream. He lived in a dream. And Martin Luther King made his dream come true.
- (iii) He had a dream. He lived in a dream. Martin Luther King made his dream come true.

지금까지 논의된 등위접속사 구문을 위한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는데 새로이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이 하나의 규칙뿐이다.

(32) 가. 정의 0.2 (담화표상 생성규칙)

(viii) K_r 이 담화표상이라면, $K_r ; K_r$ 은 담화조건이 될 수 있다.

위 규칙 중 담화표상구조 $K_r ; K_r$ 의 담화표상 사이의 위계나 담화표상 안의 담화조건 간의 접근가능성은 KGR의 기본원리를 따른다. 즉, 3.3절에서 논의된 $K_r \triangleleft K_r$ 와는 달리, $K_r ; K_r$ 에서 오른쪽의 K_r 이 왼쪽의 K_r 에 하위담화표상이 되며, 오른쪽 K_r 에 있는 담화지시체는 왼쪽의 K_r 에 있는 담화지시체에 접근가능하다. 반면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4. 맺는말

지금까지 *and* 과 *when* 과 같은 접속사 구문을 접한 청자의 인지상태를 올바르게 나타내기 위한 담화표상구조 구축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KGR이 제시한 바와 같이 *and* 등의 등위접속사구문이나 *when* 과 같은 종속접속사구문을 모두 ‘;’라는 하나의 운용자를 사용하여서는 *when* 과 같은 종속접속사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간의 조응관계에 대한 청자의 인지상태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없음을 논하였다.

이어서 Chung (1992) 과 정소우 (2004) 에 소개된 선형분석 개념을 KGR의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에 도입하여, 종속접속사구문에 나타난 명사간의 조응관계를 올바르게

위 세 예문은 대명사 *he* 와 고유명사 *Martin Luther King* 사이의 조응관계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필자의 물음에 답변한 University of Washington에 재학 중인 12명의 영어 모국어 화자들 중 1/3은 위 세 예문 모두 두 명사간의 동일지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1/3은 위 세 예문 모두에서 두 명사간의 동일지시관계가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1/3은 (i)의 예문에서 두 명사간의 동일지시관계는 나쁘며, (iii)의 예문에서는 좋다고 답하였다. 그들은 또한 (ii)의 예문에서는 두 명사간의 동일지시관계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으나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ii)에서 등위접속사 *and* 앞에 휴지기간이 길면 두 명사간의 동일지시관계가 보다 자연스러운 것 같으며, 그 휴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두 명사간의 동일지시관계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고 답하였다. (이는 문제의 동일지시관계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답변자들이 위 예문을 입으로 말하여 볼 때, *and* 앞에 휴지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ii)의 예문이 (i)의 예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세 그룹 중 중립적인 직관을 가진 마지막 그룹의 판단을 따른다면, 위 세 예문의 담화표상구조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는 독립된 담화표상이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KGR p.17을 참조할 수 있다.)

(i') $K_1 \oplus K_2 ; K_2$

(ii') 가. $K_1 \oplus K_2 ; K_2$ 혹은 나. $K_1 \oplus K_2 ; K_3$

(iii') $K_1 \oplus K_2 \oplus K_3$

위 세 개의 담화표상구조 사이의 구조적 차이점이 (i) - (iii)의 세 예문에 나타난 대명사와 고유명사 사이의 동일지시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수용성을 가져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i')과 (ii')가에서 두 번째 담화표상과 세 번째 담화표상은 같은 지표를 가지므로, 대명사에 의해 두 번째 담화표상에 도입된 담화지시체는 고유명사에 의해 세 번째 담화표상에 도입된 담화지시체와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반면 (ii'나)와 (iii')의 두 번째 담화표상과 세 번째 담화표상은 서로 다른 지표를 가지므로 대명사에 의해 두 번째 담화표상에 도입된 담화지시체는 고유명사에 의해 세 번째 담화표상에 도입된 담화지시체는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는 기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선형분석에 사용된 동일 지표를 가진 두 개의 담화표상을 이용하여 등위접속사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간의 조응관계도 설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 제안된 분석은 KGR의 분석이 갖지 못한 회복력을 가진다. 가령 $K_1 \supset K_2$ 의 담화표상구조의 경우 종속절이 주절보다 먼저 발화되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K_1 \supset K_1$ 의 담화표상구조의 경우 주절이 종속절보다 먼저 발화되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담화표상구조를 토대로 본래의 문장을 복원할 수 있다. 반면, KGR의 분석은 이러한 회복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분석은 본문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when*이나 *and*와 같은 접속사구문만이 아니라 *although*, *because*, *since* 등 다른 종속접속사 구문이나 *but*, *or* 등 다른 등위접속사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간의 조응관계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정소우. 2004. 조응어 실태를 풀기. *언어와 정보* 8.2, 1-25.
- Biber, Douglas, Stig Johansson, Geoffrey Leech, and Susan Conrad.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 Harlow.
- Chung, So-Woo. 1992. *Cataphora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Ph.D. thesis, University of Washington.
- Dorgeloh, Heidrun. 2004. Conjunction in sentence and discourse: sentence-initial and and discourse structure. *Journal of Pragmatics* 36, 1761-1779.
- Enç, Mürvet. 1987. Anchoring conditions for tense. *Linguistic Inquiry* 18, 633-657.
- Groenendijk, Jeroen and Martin Stokhof. 1991. Dynamic predicate logic. *Linguistics and Philosophy* 14, 39-100.
- Heim, Irene.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Hinrichs, Erhard. 1986. Temporal anaphora in discourse of English.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63-82.
- Kamp, Hans. 1984.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In Groenendijk et al. (eds.), *Truth, Interpretation and Information*. Foris Publications, Amsterdam, pp. 1-41.
- Kamp, Hans, Josef van Genabith, and Uwe Reyle. forthcoming.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Handbook of Philosophical Logic. Kluwer: Dordrecht. (Draft from <http://www.ims.uni-stuttgart.de/~hans/research.html>).
- Mair, Christian and Marianne Hundt. 1997. The corpus-based approach to language change in progress. In Uwe Böker and Hans Sauer (eds.), *Anglistentag 1996 Dresden: Proceedings*, pp. 71-82, Trier. Wissenschaftlicher Verlag.
- Partee, Barbara. 1984. Nominal and temporal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7, 243-286.

van der Sandt, Rob A.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9, 333–377.

접수 일자: 2008년 5월 9일

게재 결정: 2008년 5월 29일